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호 【루계 제25898호】 주체107(2018)년 1월 24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보도, 연구보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7(2018)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를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각국 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신문 《크라스노야르스끼 라보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고 신년사의 전문을 옹근 세면에 게재하였다.

수리아중앙TV방송도 천출위인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고 우리 공화국의 군력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함께 신년사의 상세한 내용을 전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돈》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앙골라통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난해에 조선의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한것이라고 밝히신데 대해 전하면서 3일 하루동안에만도 두차례에 걸쳐 신년사를 보도하였다.

웰남신문들인 《넌전》, 《꿘도이 넌전》, 네팔신문 《아르판》, 수리아신문들인 《띠슈린》, 《알 바아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나우로즈》,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파키스탄신문들인 《엘레션 타임스》, 《파키스탄 옵써버》, 인디아신문들인 《에이션 에이쥐》, 《월즈 미러》, 쿠웨이트신문들인 《쿠웨이트 타임스》, 《알 라이》, 로씨야의 떼쎄-로쓰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체스꼬의 인터네트통신 노빈끼, 뛰르끼예신문 《하베를레르.콤》, 스위스신문 《노이에 쮸리히 짜이퉁》, 에스빠냐신문 《엘 빠이스》, 콩고통신,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세네갈신문 《톡스 토뿔리》, 민주콩고신문 《라브니르》, 잠비아신문 《잠비아 데일리 메일》, 알제리의 신문 《알 슈르끄》, 인터네트신문 《알 빌라드》, 브라질신문 《오라 도 뽀보》, 베네수엘라의 텔레쑤르TV방송을 비롯한 각국 언론들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독보회, 강연회가 4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인디아, 탄자니아, 민주콩고, 핀란드, 단마르크, 메히꼬에서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조선인민이 2018년에도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바란다.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 그이께서 내놓으신 애국애족의 통일제안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은 더이상 조선에 대한 제재압박소동에 매여달리지 말아야 하며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핵보유국인 조선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걸출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올해에도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이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국제비서는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고 말하였으며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나이제리아준비위원회가 10일 아부쟈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인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루가, 부위원장으로 전 국회 하원의장 아군와 아나에크웨가, 서기장으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싼 맴맨 무함마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며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1일 도이췰란드반제연단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반제연단 위원장 미하엘 코트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벌가리아준비위원회가 12일 쏘피아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따나스 이와노브가, 부위원장으로 쏘피아에 있는 김일성도서실 책임자 마리야 안젤로바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수도와 지방에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장군탄생일경축 베닌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2일 꼬또누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베닌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하시고 인류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이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고계신다, 하여 오늘 조선의 국력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쭈 꼬흐미가, 서기장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인 꼬또누기지대학 학장 빠스깔 춘제메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련환모임,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 탄생 76돐경축 인디아준비위원회가 14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비서 아뚤 꾸마르 안쟌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적인 총공세로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자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조직정치사업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함경남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섰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로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올해전투의 중심을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두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도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도록 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이 올해의 전투에서 앞장서나가도록 잘 이끌어주는 한편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성있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에 자주 나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이곳 련합기업소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일군들과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으로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여러 발전소들에 내려가 이곳 로동계급과 일도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석탄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현대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발걸음을 맞출수 없으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들끓는 현실에 나가 기술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단천지구광업총국,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전극공장, 도송배전부를 비롯한 도안의 많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백운산종합식료공장, 함흥편직공장, 함흥신발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부족되는 원료, 자재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농사차비성과 계속 확대

각지 농촌들에서 거름생산실적 80%계선 돌파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비상한 각오안고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사차비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떠받들려 지난 22일현재 전국적으로 거름생산실적은 80%계선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농업성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에로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조직전개하고있다.

도, 시, 군일군들도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각지의 거름생산 및 실어내기전투장마다에서 총공격전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평양시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뜻대로 질좋은 거름을 정보당 20~30t이상 낸 높은 목표밑에 생산 및 실어내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땅을 기름지게 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자면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한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이들은 21일현재 거름생산계획을 103%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전진해나가고있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농사에서도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로서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기 위해 새해벽두부터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지난해 지력개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성과를 이룩한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가 패기있게 전개되는 가운데 도적인 거름생산실적은 현재 80%계선을 돌파하였다.

함경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에 총궐기해나섰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조직사업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거름원천을 남김없이 찾아 리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현재 도적으로 200여만t의 질좋은 거름이 생산되여 논밭에 실려나가고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도안의 농촌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사차비에서 제일 품이 많이 드는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력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켰다.

룡천, 염주, 피현, 철산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당면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 앞서나가고있다.

9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한마음으로 떨쳐나선 평안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은 도시거름을 비롯한 모든 원천을 동원하여 매일 수만t의 거름을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농사차비실적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문덕군 풍년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수백개의 교사와 분교 건설

평안남도에서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도안의 학교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 및 개건보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지난 3년간 230여개의 교사와 분교를 건설하고 600여개의 대상에 대한 개건보수를 기본적으로 결속하였다. 지난해에만 하여도 80여개의 교사가 건설되고 130여개의 학교들이 개건보수되였다. 그 나날 숙천군, 대동군, 증산군, 회창군, 청남구들에서는 모든 학교의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많은 학교들에 실험실습실들이 그쯘히 꾸려지고 교육의 정보화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과 보건, 체육, 문화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도, 시, 군들에 학교꾸리기지휘부를 조직하고 지휘부일군들이 교사건설과 개건보수에 대한 추진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게 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도의 일군들은 학교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교구비품, 체육기자재들은 물론 통학배를 마련해줌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심장깊이 새기고 학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하였다. 한편 시, 군의 교육부문 일군들에게 김정숙제1중학교와 평성시덕성소학교의 복도직관물들과 북창군 백운소학교를 보여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그 성과를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성천군당위원회에서는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석고급중학교 건물을 대담하게 헐어버리고 본보기학교로 일떠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밑에 로력과 자재보장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학교건설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짧은 기간에 결속되였다.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련속적인 공격전을 들이댐으로써 지난 3년간 많은 교사를 새로 건설하고 모든 학교들을 개건보수하는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평성시의 책임일군들은 학교꾸리기사업을 시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고 시안의 학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농촌지역의 학교들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었다. 학교들이 새로 건설되는데 맞게 이들은 교구비품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었다. 시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였다. 그리하여 시적으로 여러 교사가 새로 건설되였다.

순천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학교꾸리기지휘부를 능력있는 일군들로 조직하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자체실정에 맞게 여러 학교들에 화력발전소 연재에 의한 벽돌생산기지를 꾸리고 해마다 많은 벽돌을 생산보장하게 하였다.

회창군당위원회에서는 문암고급중학교 2호교사건설을 발기하고 세멘트와 강재, 색철판기와를 비롯한 많은 자재를 해결해주어 최단기간안에 끝낼수 있게 하였다. 분교가 많은 군의 조건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지난 3년동안 군적으로 12개의 분교를 새로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득장구당위원회에서는 구안의 교육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학교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구적인 작전에 따라 학교건설과 함께 현대적인 교육설비를 일식으로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이 동시에 벌어진 결과 구안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다기능화된 교실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기들의 재능을 더 활짝 꽃피울수 있게 되였다.

개천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지난해 1월 시안의 일군들이 모교를 도와줄것을 발기하고 이 사업의 앞장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시안의 일군들이 한결같이 떨쳐나 교육설비들과 건설자재, 물자들을 모교들에 지원해주었으며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자원진출한 여러명의 분교교원들이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속에서 변함없이 교단을 지켜가도록 하였다.

지금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해 헌신분투하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전력증산투쟁으로 들끓는다

자강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자강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새해전투에 들어간 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이 높이 세운 전력생산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흥주청년1, 2, 3호발전소, 만포연하발전소, 화평군민발전소, 우시1, 2호발전소를 비롯한 도안의 백수십개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전력공업부문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중소발전관리국에서는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 물관리를 잘하도록 기술지도를 앞세워 겨울철조건에서도 물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고있다.

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는 귀중한 물이 새여나가지 않게 수문바킹보수와 교체작업을 비롯한 겨울철전력생산준비를 빈틈없이 해놓고 고수위에 의한 운전조작을 책임적으로 하여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흥주청년1, 2, 3호발전소들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하게 벌리면서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만포연하발전소, 화평군민발전소, 희천3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시간당 전력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적은 물을 가지고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업간점검과 순회점검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우시1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기들의 려자장치프로그람을 우리 식으로 개발한데 이어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합심하여 발전기술을 개조하고 초음파에 의한 수위측정장치를 받아들여 전력생산을 늘여가고있다.

성간남리발전소, 성간성하발전소들에서는 발전기들의 진동을 줄이고 출력을 높일수 있게 수차지지틀을 합리적으로 개조한데 맞게 근무성원들이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 발전기들에 만부하를 걸고있다.

강계시에서는 중소형발전소들의 발전설비기술개조에 힘을 집중하면서 북천2호발전소의 수차축을 새로 제작한데 이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안내날개를 개조하여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전력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다.

도안의 다른 중소형발전소들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전력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돌격전을 계속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온 나라에 총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영웅적인민이 자력갱생대진군의 발구름을 더욱 높이 울려가고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제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산산이 짓부시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 대답을 자력갱생에서 찾는다.

자력갱생!

우리 혁명의 력사는 이 정신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승리만을 새겨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사회주의대건설로 빛나는 1970년대를 이어 이 땅우에 경양번영기를 펼친 1980년대에 줄기차게 관통되여있는것도 다름아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1980년대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위대한 창조의 년대이며 우리 나라가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진 거창한 전변의 년대로 력사에 빛나고있다.

주체사상탑,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빙상관, 서해갑문, 5월1일경기장, 문수거리, 광복거리, 대형산소분리기, 1만t프레스…

1980년대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는 그 모든 력사적인 창조물들은 거창한 변혁과 세기적기적이 이룩되던 격동적인 나날들을 우리앞에 불러온다.

자력갱생으로 승리떨쳐온 불멸의 년대기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을 지펴올린 위대한 정신력

주체69(1980)년 10월 당 제6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맡겨진 경제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갈것을 온 나라에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이끄시며 들끓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는 전투적인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혁명적구호에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1980년대를 새로운 창조와 기적의 년대로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지가 비껴있었다.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망목표수행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신것이 유색금속고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이는데서 검덕광업종합기업소(당시)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제3선광장건설을 빨리 끝낼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으며 걸린 문제들도 몸소 풀어주시였다.

그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제3선광장건설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선광설비보장을 위하여 룡성의 로동계급을 찾아 먼길을 이어가시였다.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룡성기계련합기업소로 들어가는 갈림길어구에서 갑자기 멈춰서게 되였다. 비물이 길가에 넘쳐나 더 전진할수 없었던것이다.

일군들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렸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어서라도 가자고 하시며 길을 재촉하시였다.

그리하여 승용차는 방향을 바꾸어 분력에 나있는 길 아닌 길로 들어서게 되였는데 길이 어찌나 험한지 한 바퀴가 빠져서 뽑아내면 또 다른 바퀴가 빠지군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처럼 험한 길을 헤치시며 룡성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의 심장에 자력갱생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그리하여 검덕의 제3선광장건설을 위한 대상설비생산이 힘있게 추진되고 마침내 대규모선광장이 일떠서게 되였다.

불과 1년, 세계건설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창조의 기적을 두고 우리 수령님께서는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실로 검덕의 제3선광장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어떤 속도로,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를 보여준 80년대속도창조의 빛나는 본보기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1980년대를 기적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인 새로운 진군속도인 80년대속도!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을 자신의 제일사명으로 간주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땅 방방곡곡에 새기신 불면불휴의 자욱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룡성의 새 기적—1만t프레스가 태여나던 때의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당시 1만t프레스를 만드는 나라는 불과 몇개였다.

기계제작공업의 력사가 오래지 않은 우리 나라의 실정을 놓고볼 때 당시 1만t프레스는 그야말로 보통담으로는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할 대상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성의 로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으시고 몸소 현지를 찾으시여 룡성기계련합기업소는 힘있는 기업소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1만t프레스를 만들어내도록 로동계급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지나온 년대들마다에서 당과 수령의 무릎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화답해나선 룡성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에 키여이 보답할 각오를 안고 1만t프레스생산전투에 용약 떨쳐나섰다.

그들은 전기로의 용량이 모자라면 로를 개조하여 용량을 높이고 이전같으면 들어올릴 엄두도 내지 못할 135t짜리 소재를 30t능력의 기중기로 대담하게 들어올리였으며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설계도 제작도 조립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냄으로써 1만t프레스를 기어이 훌륭하게 만들어내고야말았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1만t프레스를 보시고 기쁨과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자력갱생하여 만든 1만t프레스를 신문에 낸 사진만 보고있을수도 없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가져다 설치해놓은 다음 거기에 가서 보면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섬섬해할것 같아 오늘 시간을 내여 찾아왔다고 그이께서 뜨겁게 말씀하시였을 때 룡성의 로동계급은 얼마나 격정에 넘치였던가.

1만t프레스만이 아니다. 서해갑문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따라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일떠세운 자랑스러운 세기적창조물이다.

건설의 첫삽을 뜬 때로부터 5년, 그 짧은 기간에 20리 남바다우에 세계굴지의 갑문이 일떠서고 새로운 서해갑문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하신 서해갑문건설은 조선에서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온 세계앞에 다시한번 증명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의것이 제일이고 우리 식이 제일이라는 민족적긍지와 자존심을 새겨주시며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남보다 우월하게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여 무산의 철산봉마루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회전식착정기가 다른 나라 회전식착정기와의 굴뚝기경기에서 단연코 승리하여 만사람을 경탄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나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발기하신 공작기계세끼치기운동도 힘있게 벌어져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5000여대의 현대적인 공작기계들이 생산되는 놀라운 성과도 이룩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신기루와 같은 기적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평양민영기도 바로 자력갱생의 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몰아친 1980년대에 펼쳐졌다.

하다면 무엇이 우리 인민을 그렇듯 자력갱생의 강자로 되게 하였는가.

그것은 사랑이였다. 믿음이였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연혁사에 사랑의 전설로 새겨진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자랑높은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던 때의 일이다.

어느날 현지에 나오시여 협의회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형산소분리기생산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들중에 아직 당원의 영예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그들을 당에 받아들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어둠이 짙을 무렵 떠나던 차를 되돌려 공장에 다시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입당문제와 관련한 온정깊은 가르치심을 거듭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사랑과 믿음속에 락원땅에서는 수십명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한날한시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는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으며 대형산소분리기가 완성되는 기적도 이룩되게 되였다.

서해갑문건설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해갑문과 같은 거창한 건설공사는 당의 령도에 충실하며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우리 인민군대만이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웅적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한 기념비를 잘 만들어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갑문건설이 끝나면 영웅을 비롯한 국가표창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영웅만 하여도 한 100명은 나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을 높이 평가하도록 하시였다.

공사준비가 한창이던 때에 공사장에 먹는물이 부족하여 건설자들이 불편을 느끼고있는 사실을 아시고 시추대들을 보내어 샘줄기를 찾아내도록 하시여 먹는물문제도 몸소 풀어주시고 건설자들이 늘 더운 밥에 더운 국을 먹을수 있도록 온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며 서해갑문건설을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자력갱생으로 승리를 떨쳐온 불멸의 년대기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킨 위대한 창조와 기적의 년대로 아로새겨진 1980년대, 사랑과 믿음으로 온 나라 천만군민을 영웅인민,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키우시며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우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창조와 변혁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1980년대를 우리 인민은 잊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력사와 전통은 위대한 계승으로 빛난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자력자강의 강국이다.

자기 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고 우리자신의 노력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행복한 생활이 달려있음을 자력갱생으로 승리를 떨쳐온 불멸의 년대기들이 확증해보이고있다.

창조와 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펼쳐놓았던 1980년대처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할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비약과 변혁을 이룩하고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진두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강용한 인민이 있으며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가진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가 있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운다.
—무령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발전소조업식과 마지막전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그대로 인민사랑의 력사이다. 그 키높은 생애의 갈피마다에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사랑의 일화들이 수놓아져있다.

주체53(1964)년 4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강계청년발전소 조업식에 깃든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그중 하나이다.

그날 이른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업식을 앞둔 현장에 나오시였다. 일군들로부터 조업식준비가 다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시면서 발전기실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집채같은 발전기며 각종 계기들을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일군들이 밟고 서있는 발판을 떠여보시고 발을 한번 굴러보라고 이르시였다.

바닥에는 철판이 놓여있었다. 한 일군이 힘껏 발을 굴렀다. 철판이 소리를 내며 울릴뿐 별다른 점은 없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발판모서리를 밟아보시였다. 발판이 약간 드놀았다.

그이께서 발판을 밟아보라고 하신 리유를 깨닫게 된 일군들은 발판이 사람이 다니는데는 별로 위험할것 같지 않다고 말씀올렸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진동이 심하여 발판이 더 움직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동무들은 어찌다 한번씩 여기를 지나다니겠지만 로동자들은 하루종일 이 발판을 딛고 다니면서 일하게 될것이다. 그들이 일에 정신이 팔려 무심히 지나다가 잘못하면 넘어질수도 있고 순간이나마 놀랄수도 있으니 발판을 든든하게 해주어야 한다. …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업장의 전등불빛이 어두워 로동자들의 시력이 나빠질수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사람들의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실내조명도 잘하여야 한다고, 발전소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은 대를 두고 발전소를 지켜나가야 할 사람들이기때문에 건강을 보장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변압기실에 들리시였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습도가 좀 높다고, 지렇게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니 습도가 높을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작업장에 습기가 차면 여기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관절염에 걸릴수 있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빨리 고쳐주어야겠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약간 움직이는 발판과 축수가 좀 낮은 전동, 이따금 떨어지는 천정의 물방울…

누구나 무심히 스칠수 있는 부족점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코 스쳐보내지 않으신것이다.

한 일군이 앞으로 꼭 고치겠다고 말씀올렸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단호하신 말씀이 일군들의 가슴을 다시금 울려주었다.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고쳐야 하겠다. 로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고서는 발전기를 돌릴수 없다. 조업식을 미루더라도 로동자들의 건강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 …

로동계급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이런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발전소에서는 그날 오후에 있게 될 조업식을 앞두고 또다시 전투가 벌어졌다.

진정 이것은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전투였고 발전소건설의 마지막전투였다.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선 발전소의 건설 전과정에 비하면 순간에 지나지 않는 작은 전투였지만 그것은 로동자들의 건강을 소홀히 한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종지부를 찍는 큰 전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오후 다시 현장에 나오시여 아침에 지적해주신 결함들을 다 고쳐놓았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시고 서야 못내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수령님을 모시고 조업식을 잘해보자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채 히 성

혁명일화와 더불어 꽃펴난 이야기

대 홍 단 의 메 아 리

사연도 많고 뜻도 깊은 이 이야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삼천리벌에 갑자농사열풍을 일으키시던 나날에 태여난 혁명일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날은 18년전 봄 어느날이였다.

대홍단군종합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네 집으로 오고게신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한 제대군인 민원식동무와 그의 안해 박혜금동무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졌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데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함뿍 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써 뜨락에 들어서시는것이 아닌가!…

《아버지장군님, 아직 친부모들도 와보지 못한 저희 집을 아버지장군님께서 제일먼저 찾아주시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양에서 살다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대홍단에 달려와 민원식동무와 가정을 이룬 박혜금동무가 얼어질듯 마중나가며 삼가 드린 인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제대군인들의 신혼살림집에 내가 제일먼저 와야지 누가 오겠나라고 정깊은 어조로 뇌이시면서 언제 결혼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군당책임일군이 지난해에 결혼하였다는것과 박혜금동무가 임신중이라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순간 혜금동무는 얼굴이 화 달아올라 저도모르게 머리를 숙이였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것참 듣던중 제일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가 따뜻이 흘러들어 박혜금동무의 가슴속에서는 긴장이 봄눈녹듯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래 해산달이 언제냐?라고 물으시자 친정어머니에게 말씀올리듯 넉달후에 몸을 풀게 된다고 스스럼없이 아뢰이였다.

《그럼 미리 준비를 잘해놓아야 하겠구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누구에게라 없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인자하신 모습은 정녕 친아버지의 모습이였다.

그때였다. 행복의 무아경에 한껏 심취된 박혜금동무가 위대한 장군님의 손을 꼭 잡으며 한가지 소원이 있다고 어리광조로 말씀올리였다.

《무슨 소원이요?》

그는 귀속말로 7월에 해산을 하게 되는데 아기이름을 지어주시였으면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참으로 엉뚱한 청이였다. 동행한 일군들도 놀라와하는 기색이였다.

그것을 띠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혜금동무의 등을 가볍게 다독여주시면서 벌써 이름을 짓잔 말이지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뇌리에는 낮에 만나보신 제대군인의 안해의 모습이 그냥 삼삼하시였다.

아들인지, 딸인지…

미소를 머금으신 그이의 심중에 일렁이는 기쁨의 물결,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그는 내가 방에 들어가니 마치 친정아버지를 만난것처럼 내 손을 잡고 귀속말로 7월에 애기를 낳게 되는데 아이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애에 넘친 음성이 일군들의 폐부로 뜨겁게 흘러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려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원래 아이이름은 아버지가 짓게 되여있지만 제대군인안해의 간절한 부탁인것만큼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줍시다.

그러시고는 《아들을 낳게 되면 대홍이라고 하고 딸을 낳게 되면 홍단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들과 딸을 낳아 아들이름은 대홍이라고 하고 딸이름을 홍단이라고 짓게 되면 대홍단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아버지성이 민가이므로 아들이면 민대홍이라고 하고 딸이면 민홍단이라고 부르면 뜻이 있고 좋을것이요. 원래 좋기는 오누이쌍둥이를 낳아 대홍이, 홍단이라고 하면 더 리상적이요.

이러시며 기쁨에 겨워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박수를 쳤다.

대홍이, 홍단이!

어찌 미구에 태여날 한 아기의 이름만이겠는가.

인민의 값높은 삶이 꽃피는 오늘을 위해, 후대들을 위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이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비껴있고 수령님을 따라 백두광야를 넘나들며 애국의 선혈을 뿌린 혁명선렬들에 대한 숭고한 추억이 담긴 뜻깊은 이름이 아니면가.

정녕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려 우리 수령님 이어가신 로고의 자욱이 깊이 새겨진 백두삼천리벌에 대한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이 깃들어있고 이 땅의 아이들에게 안겨주실 휘황찬란한 래일에 대한 억척같은 확신이 비껴있는 사연도 뜻도 깊은 이름이였다.

아들이면 대홍이, 딸이면 홍단이!

이처럼 조국땅 북변의 한 제대군인가정에 태여날 아기를 아니 기쁨도 삼천리이고 노래도 삼천리인 대홍단의 맑은 미래를 뜨겁게 축복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혜금동무만이 아니라 머지않아 애기를 낳게 될 제대군인가정의 안해들을 위해 평양산원에서 현지에 내려와 그들의 해산방조를 맡아하도록 온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대홍단의 제대군인가정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각별한 사랑속에 그후 민원식동무네는 귀여운 옥동녀를 보게 되였다.

태여나기 전부터 절세위인의 축복이 넘치는 이름을 받아안은 민홍단이가 고고성을 터치였을 때 대홍단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이 기뻐하며 제 집안일처럼 흥성이였다.

민홍단이에 이어 백두대지에서는 수많은 대홍이, 홍단이들이 태여났다.

실로 대홍단은 기쁨도 삼천리, 노래도 삼천리였고 행복도 삼천리인 복받은 대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삼천리벌에 갑자농사열풍을 일으켜나가시던 나날에 태여난 혁명일화를 출생증처럼 안은 민홍단이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속에 무럭무럭 자라났다.

백두삼천리벌의 제대군인가정들에 홍단수마냥 끊임없이 흘러드는 우리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은 이 고장의 모든 대홍이, 홍단이들의 어엿한 성장의 자양분이였다.

세월은 류수처럼 흘러 대홍이, 홍단이들이 어느새 락아소년을 나서고 잇달아 유치원을 거쳐 배움의 꽃대문에 들어서게 되였다.

민홍단이도 소년단원이 되였다.

주체101(2012)년 1월 그는 수도에서 열린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에 참가하게 되였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무대에 출연하여 자기의 출생과 성장에 깃든 전설같은 사랑을 담은 실화무대를 펼쳐 만사람을 울린 민홍단이는 리축복, 리경연, 류소금, 고후희학생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편지를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행복동이들에게 사랑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훌륭히 자라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거라

김 정 은

2012.2.9》

어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항상 모범을 보인 민홍단이는 그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장군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속에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그를 사랑의 품에 안아 자신의 가까이에 앉혀주시였다.

그때 민홍단이는 자기처럼 영광의 주석단에 앉은 청년들속에서 대학생복차림의 제 나이또래들도 보게 되였다.

그의 가슴속으로 일순 부러움이 솟구쳤다.

그는 남달리 수학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수학에 아름다운 꿈을 싣고 그림을 그려도 수학공식으로 답을 맞는것을 그리군 하였다. 이런 그를 두고 선생님들과 동무들은 앞날의 훌륭한 수학자, 과학자가 될것을 바라며 중학교를 졸업하면 꼭 대학에 가라고 권고하군 하였다. 하기에 민홍단은 영광의 주석단에 앉은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래일의 자기 모습을 찾아보면서 선뜻 눈길을 떼지 못하였던것이다.

하지만 부러움은 순간이였다.

태여나기 전부터 하늘같은 사랑을 받아안으며 자란 그였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자기 집에 모셔진 사연도 뜨거운 기념사진을 보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겨온 민홍단이였다.

자기 집을 찾으시였던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 입으시였던 세월의 눈비가 습배인 아전복,

낮이나 밤이나 꿈결에도 그 아전복자락을 마음속으로 쓰다듬고 쓰다듬으며 자기가 누리는 행복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마련되였는지 심장에 새기며 성장한 민홍단이였기에 중학교를 졸업하자 대학생복이 아니라 군복을 입는 길을 택하였다.

이 땅의 청년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이어가신 전선길에 서는것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없고 그 길에 청춘의 진정한 삶의 보람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민홍단이는 어제날의 최전연초병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초병이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축복이 넘쳐흐르는 백두대지에서 태여난 수많은 대홍이, 홍단이들이 지금 민홍단이처럼 보답의 한길, 충정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가고있다.

그런 새 세대들로 하여 대홍단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기쁨도 삼천리, 노래도 삼천리이다.

이는 사랑과 의리로 굳게 맺어진 령도자와 인민의 영원한 혼연일체를 길이 전하는 시대의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량 순

우리 어버이, 그 부름속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우리 어버이,

이 부름은 한없이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려치던 이 나라 아들딸들의 심장의 목소리이다.

며칠이 친근한 그 부름속에 실려오는 수십년전의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벽동군의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들속에는 한 녀성일군도 있었다.

일군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한사람한사람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자리에 앉혀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벽동군인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였다.

일군들이 올리는 보고를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기생산을 늘여 인민들에게 고기를 넉넉하게 먹일수 있는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벽동군이 고기생산에서 앞장에 설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협의회가 시작되여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일이신지 잠간 쉬였다가 회의를 다시 하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회의에 참가하고있던 녀성일군을 인자하신 눈길로 바라보시며 어서 애기를 돌보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밖의 말씀에 녀성일군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애기를 맡기고 협의회에 참가하여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히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또박또박 적는데만 열중하고있었던 그는 수령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부러 휴식시간을 마련하시였다는것을 깨닫고 송구함을 금치 못하며 아직은 일없다고 목메인 소리로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따뜻이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 애기를 돌보라고 다시금 이르시였다.

녀성일군은 한없이 다심한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일군과 애기를 위하여 두번씩이나 중요한 협의회를 중단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돌려주시였다. 그리고 협의회가 끝난 후에는 녀성일군을 식탁에 마주앉혀주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애기에게 주라고 하시며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그 순간에도 어린것은 단잠에 들어있었다.

녀성일군은 아기의 볼에 격정으로 달아오른 얼굴을 비비며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불렀다.

아, 우리 어버이!

어찌 그 녀성일군만이였겠는가.

우리 수령님께서 협의회를 두번이나 휴회하신 사연을 전해들은 온 창성군과 벽동군의 인민들모두가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이 목메여 불렀다.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오늘도 이 땅에 뜨겁게 울리는 인민의 그 부름속에 실려오는 우리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이야기는 흐르는 세월처럼 끝이 없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석탄과 광물생산, 철도수송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과학적인 타산에 생산적앙양의 길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일군은 있는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하겠는가 하는것을 중심에 놓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경제적효과성을 적극 높일수 있도록 타산을 똑똑히 하여야 합니다.》

개천탄광에서 새해에 들어와 높아진 석탄생산목표수행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개천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이 탄광의 생산조건은 다른 단위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하지만 일군들은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능숙한 작전과 지휘로 공업의 식량인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다.

성과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기업관리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해가고있는 김광천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의 창조적인 일본새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된다.

새 기술의 주도자가 될 때

최근 탄광에서는 경질합금열처리공정을 새로 받아들여 그 력을 톡톡히 보고있다.

정머리의 수명을 지난 시기에 비해 거의 2.5배나 늘여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하고있는 사실을 놓고볼 때 이 공정도입이 가지는 의의를 잘 알수 있다.

그러나 보다 주목을 돌리게 되는것은 새 기술도입사업을 책략적으로 짜고들어 제작원가를 대폭 낮추면서도 보다 큰 경제적실리를 보장한 이곳 책임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이다.

지난 어느날 열처리공정도입을 위해 다른 단위에서 들여와야 할 자재 및 부속품명세표를 료해하던 지배인은 선뜻 수표란에 자기의 이름을 써넣을수 없었다. 탄광실정에서 소요되는 자재량이 예상외로 엄청났던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석탄생산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경질합금열처리공정도입을 중도에서 그만둘수 없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전되였다. 탄광에서 기술준비에 조금만 돌을 돌이면 얼마든지 제작해낼수 있는 적지 않은 량의 부분품들이 문건에 올라있었던것이다. 탄광의 기술적잠재력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파악하고있는 지배인은 적지 않은 자재와 부분품들을 대담하게 자체로 만들거나 해결하기로 결심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실천방도를 찾아나가는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어느 부분은 누구에게 맡기고 어떤 설비는 어느 단위에서 만들게 하면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다는 구체적인 타산이 서있었다.

이렇게 되여 처음보다 제작원가가 대폭 줄어든 자재명세표가 다시 작성되였다. 실천과정에도 적은 투자로 보다 큰 실리를 담보하는 탄광일군들의 사색은 계속되였다.

정머리본체와의 부착능력이 약한 경질합금은 그 질이 아무리 높아도 의의가 없었다. 과학적타산에 기초한 실리적인 눈으로 따져보는 지배인에게는 이 문제가 통하지 않았다.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불러일으키니 그 해결방도가 나졌다. 모두가 경질합금열처리공정을 일떠세워 정머리의 질을 한계단 높이는것과 동시에 탄광의 생산활동에 최대한의 도움을 줄수 있게 완성하자고 하였던것이다.

대중의 창조적열의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자면 구체화된 조직사업이 따라서야 한다. 탄광의 일군들은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이 높은 젊은 기술자에게 경질합금과 정머리본체의 단접문제를 맡아 해결하도록 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동시에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열처리로에서 단순히 경질합금만이 아니라 치차를 비롯한 다른 부속품들에 대한 열처리도 할수 있게 기술공정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결과 탄광에서는 한번의 새 기술도입으로 막장작업의 여러 측면에서 일거다득의 효과를 보게 되였다.

같은 조건에서도 보다 큰 경제적실리를 보장한것, 이것은 한개 단위들 책임진 일군들의 부단한 사색과 창조의 결과라는것을 이들의 새 기술도입과정이 잘 보여주고있다.

하나를 투자하여 열, 백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적앙양의 길을 열어나가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이미 마련된 불길기술적토대들이 온을 낼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볼 때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절약투쟁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어 진행하는 탄광일군들의 사업은 본받을만 하다.

자재문제를 놓고보자. 이 탄광의 생산총화에서는 자재소비정형이 첫번째로 론의되고있다. 총화때마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석탄 1톤 동발, 정대, 베이링 등 막장자재들의 표준적인 소비기준을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 갱별소비정형을 종합하여 게시한다.

이런 총화사업은 자주 할수록 좋았으며 자재를 제때에 공급하는것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것이 탄광일군들의 주장이다.

이때 갱일군들은 자기 단위에서 절약된 자재는 얼마이고 랑비된 자재는 얼마인가를 다른 갱들에 비추어 따져보며 자책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단위와의 대비속에 나라재산을 아끼는 자각을 더욱 불러일으킬수 있게 해주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고있다.

이렇게 되니 동발 한대, 용접봉 한대까지도 아껴쓰기 위한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여 적지 않은 증산예비가 나왔다.

공급받은 전력을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해 자체로 전력부하관리체계를 구축해놓고 아글타글 노력하는 이들의 생산지휘경험도 좋았다. 갱단위별전력소비실태를 한눈에 알수 있게 구축된 이 체계는 교차생산조직에서의 높은 과학성을 담보하고있다.

얼마전 긴급한 정황으로 탄광에는 지난 시기보다 적은 량의 전기가 공급되게 되였다. 그러나 탄광일군들은 전력부하관리체계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단위별부하정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수시로 변화되는 막장조건에 맞게 생산지휘를 능동적으로, 립체적으로 해나갔다.

이렇게 되여 탄광에서는 공급받은 전기로 생산을 전과정없이 내밀게 되였다. 불리한 생산조건에서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게 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는 개천탄광의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새 기술도입이나 증산절약투쟁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과학적타산을 앞세워야 한다는것이다.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자기 단위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혁신적인 안목으로 부단한 사색과 실천을 배합해나갈 때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심학철

자립경제의 잠재력

◇ 우리의 자립적경제토대의 위력은 무진막강하다.

지난 혁명의 년대기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당의 자립적경제건설로선을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았다. 그 힘찬 발구름속에 도처에 대동력기지들과 금속공장들, 화학공업기지들이 일떠서 굳건한 자립적경제토대가 마련되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져 주체비료폭포가 쏟아지고 주체비날론폭포의 대경사를 안아왔으며 최근년간에는 황철과 김철에서 우리 식의 산소얼음용광로가 웅을 쓰며 거센 숨결을 내뿜게 되였다. 흥남진구공장에서 천연흑연에 의한 초고전력전기로용전극이 생산되고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과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대고조전역들에서는 더 많은 석탄과 광물을 요구하고있으며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충족시킬 때 자립적경제토대의 위력은 더 높이 발양된다.

◇ 자립의 길을 따라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온을 낼수 있게 석탄과 광물생산, 철도수송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온갖 제재책동에 매여달리여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불과 몇달을 사이에 두고 다계단으로 력무력한 성의 승전고를 련이어 울려온것처럼 자립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평마루를 향하여 기세차게 돌진해야 한다.

오늘의 전인민적인 총공세에서 자신들이 지닌 시대적사명감을 자각한 기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전기로와 발전기앞에서, 주체화가 심혈된 일터마다에서 대고조진군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고있다.

그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석탄과 광물생산,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우리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위력을 떨치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이 무겁고도 엉예로운 과업이 석탄과 광물생산, 철도수송을 맡은 로동계급에게 나서고있다.

◇ 련대적혁신의 불길드높이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온을 낼수 있게 하자.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다. 각지 탄광들에서는 대동력기지들과 금속공장들, 화학공업부문에서 요구하는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자력갱생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능률적인 굴진,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동시에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는 사업과 새 기술도입을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광물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이자 곧 생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금속공업부문에 화차와 기관차를 다른 부문에 앞세워 보장하며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자립적경제토대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도록 하여야 한다.

석탄공업과 채취공업,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이여!

련대적혁신의 불길드높이 생산과 수송에서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하여 올해의 전인민적인 총공세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광물생산능력확장에 큰 힘을

채취공업성아래 각지 광산들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돌격전에 떨쳐나선 채취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광물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채취공업성 일군들은 과학기술에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각지 광산, 기업소들에서 적은 투자로 높은 실리를 거두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집중하고있다.

성적인 뚜렷한 목표밑에 각지 광산들에서 굴진과 박토처리를 앞세워 전망이 좋은 채광장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중심을 두고 경제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특히 광석운반능력과 선광실수률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성아래 각지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광물생산능력확장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혜산청년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광물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은 수직승강기와 권양기를 개조하고 압축기, 착암기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과 이신작칙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분출시키고있다. 광산의 로동계급은 생산조건이 유리한 심부에 여러개의 채굴장을 전개하고 전차운반계통에 물환선을 형성하여 광석운반능력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리고있다. 마광기금광광의 자동측정체계를 확립하고 국내산 뽐프들을 새로 설치하여 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도 목적지향성있게 추진하고있다.

상농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심부개발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광부들은 박토처리를 앞세우고 전차, 광차들에 대한 점검보수와 선로관리를 짜고들어 광석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특히 신흥갱과 봉화갱, 로천갱의 광부들은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을 높이면서 채광장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선광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광물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적인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선광실수률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온파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도 채굴장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벌리며 광물증산투쟁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광명갱과 굴진갱의 광부들은 광산적으로 제일 어렵고 조건이 불리한 막장을 자진하여 맡아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이곳 광부들은 걸린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가면서 압축기, 권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농업부문에 더 많은 린비료를 보내줄 일념안고 떨쳐나선 쌍룡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로천채굴장의 박토처리에 힘을 넣어 채광장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있다. 운반선로를 개건하고 전차선을 새로 늘이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화학공업부문에 필요한 회망초를 생산하는 광산과 신파청년광산, 운흥광산을 비롯한 다른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있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온을 내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새해진군길을 다그치고있는 채취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에 의해 광물생산능력확장사업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윤금찬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평양철도국에서

평양철도국의 일군들이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송조직과 지휘를 잘 짜고드는것은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입니다.》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정초부터 인민경제 중요부문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성과를 이룩해가고있는 평양철도국 일군들의 수송조직과 지휘를 분석해보면 주목되는것이 있다.

그것은 수송지휘부문의 일군들과 중요철도역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 당면한 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는것이다.

무엇보다 수송지휘를 맡은 일군들이 교대간 사회주의경쟁을 맹렬히 벌리면서 중요물동을 지체없이 수송하기 위해 책임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달림키리와 화차회귀일수, 화차들의 정적하중보장 등 중요기술지표들을 사회주의경쟁요강에 반영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과감히 전개한 결과 화물수송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수송조직과 지휘에 성과가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수송지휘부문의 일군들은 렬차운행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정연한 사령지휘체계를 세워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철도국일군들은 철도역들의 역할을 높여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혁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국의 능력있는 일군들이 대전역과 평양역을 비롯한 중요역들에 전투화지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현지에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수송조직과 지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특히 철길, 통신, 급전부문의 배합작전을 더욱 강화하여 차굴이와 차무이, 렬차검사를 비롯한 모든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려 렬차머무름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화물렬차들이 전속으로 달리도록 하고있다.

수송수요가 늘어날수록 철도국일군들은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 양덕역으로부터 거차역까지의 실시간렬차운행정보화를 실현하고 기술역들에 화차식별장치를 받아들여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구체적인 계획밑에 추진하고있다.

나라의 철도화물수송에서 많은 몫을 맡고있는 평양철도국의 일군들은 지금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평양조차장역에서— 본사기자 찍음

감자농사차비에 힘을 집중

량강도안의 감자산지들이 새해농사차비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감자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일념안고 삼지연, 대홍단, 백암군안의 일군들은 농장들에 내려가 영농공정법에 따르는 감자농사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는 한편 보여주기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한껏 고조시키고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땅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릴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정초부터 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삼지연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각각 1.5배, 1.3배로 늘이였다.

군에서는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열흘동안에만도 5 000t의 거름을 집중수송하였으며 감자밭들의 흙짤이를 봄씨붙임전으로 끝낼 대담한 목표밑에 군 4만t의 토지개량제를 포전들에 실어내갔다.

한편 추위가 계속되는 조건에 맞게 통알감자종자가 썩거나 얼지 않도록 온습도조절을 잘하면서 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대홍단군에서도 열두바닥과가, 흙보산비료생산 등이 립체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감자수송대의 운전사들은 거름과 너탄수송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불리한 일기조건속에서도 하루실적을 120%이상 끌어올리고있다.

군안의 농장마다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돼지목장들에서는 겨울철조건에서도 많은 물거름을 장만하고있으며 대홍단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30여종에 수천점의 각종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백암군에서는 보름동안에 터포지구 수력정보의 감자밭들에 대한 흙짤이를 와닥닥 해제끼였으며 북부고산지대의 유리한 조건에 맞게 밭구, 쎌레 등을 리용하여 감자밭들에 거름더미를 높이 쌓아가고있다.

한편 도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감자대풍을 안아오는데 이바지할 열의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많은 량의 거름과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하여 영농전투로 들끓는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9월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관심을 끄는 벼, 강냉이종자처리방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면적을 늘이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종자처리는 씨앗의 생리적활성을 높여 싹트는률과 모선률을 높이고 여러가지 병충해를 미리막기 위한 중요한 영농기술공정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지난해 함흥시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받아들인 종자처리방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 종자처리방법은 직류전압을 리용하여 벼종자처리를 진행하는것이다. 기재의 부속으로는 탄소봉과 아연판이 리용된다.

대체로 식물체에 아연성분이 부족하면 여러가지 효소활성이 억제된다. 이것은 물질 및 에네르기대사에 부정적영향을 준다. 결국 빛합성과 단백질합성과정이 지장을 받을뿐아니라 뿌리를 통한 질소, 린, 카리비료의 흡수능력도 낮아지게 된다.

아연은 또한 식물세포안에서의 수분함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부족하면 농작물은 물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진다. 특히 가물을 타는 밭에는 아연성분이 충분해야 강냉이생육을 안전하게 담보하여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있다.

지난해 이 방법을 도입한 시안의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는 그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였다.

우선 종자의 활성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전기마당에서의 처리과정에 이온상태의 미량원소들이 종자에 침투되여 생육에 영향을 주었기때문이다.

더우기 종자속에 침투된 아연성분은 아옥신의 합성과정을 촉진시키고 질소, 린, 카리비료의 흡수능력도 높여 농작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지난해 이 방법을 도입한 룡신, 영광협동농장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논벼와 강냉이생육상태가 훨씬 개선되여 정보당 더 많은 소출을 냈다.

이 방법으로 처리한 논벼종자는 싹이 튼 후 며칠이 지나도 이리저리한 부패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처리과정에 종자의 싹트기에 필요한 최적온도가 보장되여 싹트는 속도도 높아졌다. 이삭패기 역시 이 방법으로 종자처리를 진행하지 않은것들에 비하여 3~5일정도나 더 빨랐고 천알질량도 늘어났다.

강냉이종자를 이 방법으로 처리하여 심은 밭에서도 좋은 결실이 마련되였다. 강냉이의 대가 굵어진것은 물론 개꼬리가 5일정도 빨리 나왔으며 심한 가물속에서도 잘 자랐다. 결과 정보당 소출을 훨씬 높일수 있었다.

종자처리를 하는 기재의 제작원가가 적은것도 또 하나의 좋은 측면이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탄소봉과 아연판으로 아무 단위에서나 자체로 쉽게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

이 현실은 농업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일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이처럼 좋은 종자처리방법을 함흥시농기계작업소 종업원이였던 리완수동무가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연구완성하였다.

우량종자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당정책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하게 할 방도는 무엇인가. 이 문제해결을 스스로 걸머진 그들은 종자처리에 관심을 돌리였다.

종자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우량종자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기때문이였다. 이들은 효과높은 새로운 종자처리방법을 연구완성하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쳐 끝끝내 성공하였다.

현실이 요구한다면 연구사가 되고 기술자가 될 때 우리 시의 농사를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다. 이런 자각이 그들로 하여금 우월한 종자처리방법을 개발하게 한것이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창조된 종자처리방법이 올해의 알곡생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리충일

청년돌격대활동과 기술혁신운동 활발히 전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남포시의 청년들이 청년돌격대활동과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안의 청년동맹일군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청년들속에서 돌격대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이 활기있게 진행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천리마구역 대보협동농장을 비롯한 대고조적전장들마다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천리마, 와우도구역 등 시안의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의 직관선동경연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은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하고있다.

단천발전소에 보내줄 발전설비생산을 기한전에 다그쳐 끝낼 열의를 안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청년들은 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설비가동에서 종전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낼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항구구역피복공장, 룡강온하피복공장의 청년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전투장들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매일 피복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시안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들이 새해영농준비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온천군 안석, 금곡협동농장의 청년들은 야간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 열흘 남짓한 기간에만도 생물활성퇴비를 비롯한 백수십톤의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였다.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룡강군 옥도협동농장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도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너탄캐기전투에서 매일 계획을 1.5배로 초과수행하는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대안구역의 청년들은 돌격대활동으로 16일현재까지 500여t의 개바닥흙을 파내여 새해농사차비로 들끓고있는 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 실어보냈다.

남포시안의 청년대학생들도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판을 크게 벌리며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이 차넘치는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

우리 삶의 보금자리 사회주의 그 품이여라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울려퍼지는 인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심장으로 리치는 인민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자강땅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이야기가 꽃펴났다.

사경에 처했던 인민군군인들이 도안의 일군들과 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사랑과 정성속에 소생의 기쁨을 꽃피우게 되였던것이다.

우리모두의 피와 살, 온넋을 다 바쳐서라도 인민군군인들을 무조건 살려내자. 이런 신념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병원 의료집단이였다.

그들속에는 환자들의 건강회복에 좋은 영양음식들을 마련해온 일군들도 있었고 인민군군인들의 친부모, 친형제가 되여 돌봐준 의사, 간호원들, 온 가족이 떨쳐나 환자들에게 진정을 바친 의료일군가정도 있었다. 의료집단과 한건호에 서서 치료전투를 벌린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진정도 뜨거웠다.

이런 불같은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군인들은 어려차례의 수술을 성과적으로 맡고 위험계선에서 벗어나게 되였다.

그들이 도인민병원에서 보낸 나날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다시금 과시된 날들이였다.

받아안는 사랑이 클수록, 누리는 행복이 클수록 그 고마움을 더욱 가슴깊이 느끼는 우리 인민이다. 이런 열렬한 사상감정은 구성시에서 살고있는 한 로인이 보내온 편지의 글줄마다에도 뜨겁게 어려있었다.

《우리 녀성들은 평양산원을 가리켜 친정집이라고 합니다. 또 새 세대들가운데는 고향이 어디인가고 물으면 평양산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받아안은 사랑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군 합니다. …》

그가 전하고싶어하는 보건일군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것이던가.

지난해 10월 해산을 앞둔 며느리를 평양으로 떠나보내는 로인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당시의 상태로는 태아는 물론 며느리의 생명도 담보하기 어려웠기때문이였다.

그러나 평양산원 8산과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이 그대로 명약이 되여 로인의 며느리는 건강한 몸으로 귀여운 딸자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그날 온 가족이 밤이 지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사회주의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다는 편지의 글줄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사회주의만세소리!

이것을 어찌 이 가정에서만 울려나오는 심장의 웨침이라고 하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한 우리 인민이기에 그 품을 지켜갈 맹세도 불같은것이다.

력포구역에서 살고있는 한 영예군인은 평양안과병원 의료일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자본주의사회같으면 막대한 돈을 들여야만 받을수 있는 눈수술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받는 사회, 의사가 환자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 사는 사회주의제도라는것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비록 군복은 벗었어도 귀중한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 혁명의 꽃을 더 활짝 피워갈 맹세뿐입니다.》

전하고전해도 끝이 없을상싶은 인간사랑의 이야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보건일군들의 아름다운 삶의 지향을 우리는 어느 한 로농통신원의 편지를 통하여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인간생명의 기사!

지난 30여년간 이 부름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능높은 고려약연구개발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온 황해제철소병원 의사 박춘섭동무.

생명의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탐구의 길에서 그는 뜻밖의 사고로 화상을 입고 쓰러진적도 있었다. 새로 만들어낸 약물의 검사를 위해 스스로 자기 한몸을 내대기도 했다.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였던가.

언제인가 전국보건일군정성경험토론회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기의 피와 살을 바쳐 환자들을 소생시킨 세리마시대의 보건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해나가겠다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이 안겨준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값높은 칭호를 빛내여나가겠다고.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당의 뜻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려는 이런 참된 보건일군들이 있어 사회주의보건제도는 그렇듯 굳건한것이라는 생각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진정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치는 사회주의만세소리, 그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고마운 품이 있는 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과 불같은 정성을 지닌 보건일군들이 있는 한 더욱 높이 울려퍼질 사회주의찬가이다.

하기에 인민은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사회주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운명의 보금자리, 삶의 전부이라고.

본사기자 조 향 미

정 성 이 명 약

◇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온 나라 보건일군들이 뜻깊은 올해에 인민보건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할 드높은 신심에 넘쳐 새해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김정철 보건성 국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보건일군들이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에 기초한 높은 실무적자질을 갖추는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뜨거운 정성을 체질화할 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위력이 더 높이 과시될수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의료일군들이 정성을 다하면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 의사들의 정성이 명약이고 정성은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의료봉사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바로 환자들에 대한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이다.

이것을 떠나 사회주의보건의 존립과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천리마시대에 보건일군들이 창조한 인간사랑의 기적들과 위훈들은 단순히 의술의 힘이 낳은것이 아니다.

천신3도화상으로 사경에 처한 한 소년을 자기들의 피와 살로 소생시킨 흥남의 의료일군들의 자랑찬 위훈과 15년간이나 걷지 못하던 소녀가 대지를 활보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환자들이 생의 희열을 다시 찾게 한 인간사랑의 수많은 기적들은 다 사랑과 정성이 낳은 결실이다.

우리 의료일군들에게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돈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만들어낼수도 없고 흉내조차 낼수 없는 당이 안겨준 정성이라는 불사약, 만능의 무기가 있다.

◇ 모든 의료일군들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뼈속깊이 체질화한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

인민보건은 사회주의영상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상징이다.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구현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의료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의료봉사사업의 모든 공정들과 계기들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지극한 정성은 높은 실력에 의해 담보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림상실기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10년간의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호흡기성전염병의 치료약을 개발함으로써 의학과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선교구역 남신종합진료소 의사 장미란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사랑과 정성을 체질화할 때 정령하지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모든 의료일군들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지니고 의료봉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김 만 유 병 원 의 료 일 군 들

불 같 은 헌 신 이 로

남포시에서 살고있는 홍정아동무에게 있어서 어머니날은 더없이 의의깊은 날이다.

한것은 우리 녀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사랑,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생명의 젖줄기가 되여 그의 몸에 뜨겁게 흘러든 잊지 못할 날이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에 높은 의학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사경에 처한 환자도 살려낼수 있고 불치의 병도 고칠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김만유병원 비뇨기외과의 어느 한 입원실은 이른아침부터 어머니날을 맞은 기쁨으로 설레였다.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료일군들의 진정어린 축하와 녀성환자들의 고마움의 인사가 오가는 속에 입원실안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차넘쳤다. 이때 리일분부과장의 말이 모두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오늘따라 정아동무가 더 고와보이누만.》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돌린것을 감촉하자 홍정아동무는 당황히 곁에 있던 환자의 뒤에 몸을 숨기였다.

몇시간후에 홍정아동무는 위험한 수술을 맡아야 했다. 이런 날에 수술을 하게 되는 의료일군들의 심리적압박감도 컸지만 당사자인 그의 심정은 더 말할것 없었다. 부과장이 류다른 《축하인사》를 한것도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싶은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였다.

오전 10시, 수술장으로 향하는 의료일군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어리였다. 모두가 제나름대로의 추억에 잠겨있었다.

수술에 함께 참가하게 된 리근철 복부외과연구실 실장에게는 바로 며칠전의 일이 되새겨졌다.

늦은저녁 리일분부과장이 그를 찾아왔다. 지난번 모의수술에서 제기되였던 문제들을 연구해보는 과정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함께 의논해보자는것이였다.

그들은 시간가는줄 모르고 진지하게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면 수술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을것 같소.》

《그럼 이 방법으로 다시 모의수술을 해봅시다.》

실장은 부과장의 불같은 열정과 높은 책임감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능청스레 이렇게 말했다.

《이러다 수술전날까지 모의수술을 하려는게 아니요?》

생각에서 깨여난 그는 슬그머니 곁에서 걸고있는 부과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신심에 넘쳐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다.

한편 문춘일의사의 눈앞에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려왔다.

당에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군인가족을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고 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취해준 병원일군들이며 긴장한 치료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 초음파진단과와 수혈과, 마취수술과의 의료일군들…

온 집단의 관심과 기대에 꼭 보답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그는 어깨가 무거워졌다.

수술을 맡아하게 된 리일분부과장의 머리속에는 홍정아동무가 병원으로 처음 찾아왔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수술을 해본 경험이 없다. 자칫하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이것이 당시 환자의 상태를 본 의료일군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어떻게 인민의 의사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하지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방도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여 그는 자진하여 수술을 맡아나서게 되였다.

지금 이 순간도 자기의 결심이 조금도 후회없다는듯 리일분부과장은 자신있게 수술장으로 향하고있었다.

* *

홍정아동무는 뜻깊은 날에 새 생을 받아안았다.

사회주의화원에 피여난 한떨기 불인양 밝은 모습으로 병원문을 나서는 그를 바래우며 비뇨기외과의 의료일군들은 다시금 절감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우리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본사기자

존 경 받 는 의 료 일 군 들

청춘시절의 그 열정으로

일흔이 넘은 의료일군이 프로그람개발자가 되여 과학연구활동에 뛰여든다는것은 힘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강원도인민병원 종양예방과에서 일하는 리동운 과장은 종양세포감별진단지원체계를 개발하여 환자치료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가 프로그람개발에 뛰여든것은 10여년전부터였다.

암성질병들을 조기에 적발하자면 그에 필요한 높은 실력을 가지고있어야 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갓 들어온 의사들은 어차피 림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일군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군 하였다.

이것은 리동운과장의 마음을 무겁게 해주었다.

암세포를 실력있는 의사 혼자서가 아니라 의료일군모두가 함께 보고 평가한다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서도 좋고 새로 들어온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의미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여 그는 암세포를 자동적으로 감별할뿐아니라 그에 대한 화상자료를 콤퓨터화면에 현시하여 그것을 보면서 협의회를 진행할수 있게 하는 프로그람을 개발할것을 결심하였다. 쉽지 않았다. 치료사업을 하면서 과학연구를 진행한다는것은 나이가 많은 그에게 있어서 힘에 부친 일이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든 개척해야 하는 어려운 이 탐구의 길에서 잠시나마 주저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의학이 뒤떨어질수 있다는 자각이 항상 자리잡고있었다.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키는 나날 원산수산대학 연구사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그는 암세포를 감별하고 진단하는 프로그람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프로그람을 계속 갱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였으며 마침내 정확한 진단을 내릴수 있는 확률을 80%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치료사업에서 큰 성과를 가져왔다.

지금 도안의 시, 군인민병원들에서는 이 프로그람을 도입하여 암성질환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는 미래에 휘서리가 내리였지만 공훈의사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청춘의 활력에 넘쳐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며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고있다.

대를 이어 지켜가는 초소

세계적인 난치성질병치료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의료일군가정이 있다. **함흥혈도병원 대퇴골두무균성괴사치료과 과장 한혜경동무의 가정**이다.

수십년전 이 병원에서 원장으로 사업한 그의 아버지 한광수동무는 어린이대퇴골두무균성괴사치료에서 새로운 방법을 개척한 유능한 의료일군이였다.

그는 늘 자식들에게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의료일군은 깨끗한 량심을 간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군 하였다. 하기에 그는 이 병에 걸린 어린이들의 고통을 자기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였으며 남들이 선뜻 뛰여들지 못하는 대퇴골두무균성괴사치료를 자진하여 맡아나섰던것이다.

당시 세계적으로 인공골두에 의한 치료방법이 기본으로 되고있었지만 그는 우리 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할것을 결심하고 주저없이 이 길에 나섰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한혜경동무는 보건일군의 깨끗한 량심을 빛내이자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가슴깊이 느끼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비록 가정부인의 몸이였지만 아버지가 못다한 연구과제를 기어이 끝낼 불같은 결심을 품고 머나먼 탐구의 길을 헤쳐나갔다.

20여년간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그는 드디어 인공골두를 전혀 쓰지 않는 우리 식의 새로운 치료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여기에 고려치료를 배합하여 완치률을 보다 높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함흥혈도병원에 배치된 그의 딸 김수향동무도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보건일군의 깨끗한 량심을 간직하고 환자치료에 전력을 다하고있다.

새 세대 의료일군인 그는 치료시간을 단축하고 치료효과를 보다 높이는 등 치료방법을 무단히 혁신하며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배권을 쥐기 위해 온넋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종합병원에서 —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사업에 집체적지혜를 합쳐간다. — 류경안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

후대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

당의 보건정책을 믿음직하게 받들어가고있는 의료일군들가운데는 **과일군인민병원 소아과의 의사, 간호원들**도 있다.

이들은 지극한 정성과 높은 의술로 군안의 어린이들속에서 나타나는 질병치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들의 앞장에는 30여년세월을 변함없이 한초소에서 일하고있는 조춘희과장이 서있다.

지금도 과장은 언제나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매 환자에 따르는 합리적인 치료방법들을 연구도입하고있으며 의료일군이기전에 친혈육이 되여 그들의 생활도 따뜻이 돌보아주고있다.

과장의 이러한 모습은 과의료일군들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지난해 출생한지 며칠밖에 되지 않는 애기가 심한 병에 걸려 과에 들어왔을 때였다. 김사결과는 시간을 지체하면 생명을 잃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이러한 때 조춘희과장이 앞장서고 과의 전체 의사, 간호원들이 떨쳐나 뜨거운 정성을 바치고 지혜와 힘을 합치며 치료전투를 줄기차게 벌려 며칠만에 환자를 소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온 집단에 일어번지는 정성의 불길속에 과에서는 수많은 중환자들을 살려내게 되였다.

본사기자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개막

제44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시, 군을 거쳐 도예선경기에서 우승한 학교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태권도, 씨름, 롱구, 수영, 스키를 비롯한 19개 종목의 경기들이 진행되게 된다.

개막식이 23일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청소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키우며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바치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기대회에 참가한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경기마다에서 정시에 빈마한 높은 기술과 고상한 도덕품성, 집단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준비해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청년행진곡》이 주악되는 속에 경기대회상징기발이 게양되고 선수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강반석고급중학교와 만경대구역 김주혁고급중학교 남자선수들사이의 롱구경기가 진행되였다.

주조 아세안위원회가 연회 마련

주체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아세안위원회가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외무상 리용호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주조 아세안위원회 의장인 씬 분트언 캄보자왕국 특명전권대사와 론캄 인타부아리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방방 히엔드라스또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팜 비엣 홍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주조 아세안위원회성원국 국가수반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우리 나라와 아세안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가일층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미국 NBC방송사 총사장일행 귀국

오펜하임 노아 데이비드 미국 NBC방송사 총사장과 일행이 23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 터 에 넘 치 는 혁 명 적 랑 만

증산군백송원료동원사업소에서 노래보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일터마다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우리 혁명은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전진하여온 승리의 력사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계속혁명의 진군가 높이 오늘의 총공세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도록 하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일터마다에 음향설비를 설치해놓고 혁명적기상과 랑만이 넘쳐나는 노래를 정상적으로 내보내여 모든 종업원들이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활해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선동원들이 노래해설 및 보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만리마기수》에 대한 노래해설사업이 진행되였을 때였다.

당초급선전일군은 노래의 절멸내용과 가사전반에 담겨진 사상주제적내용을 종업원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자기 힘을 믿고 만난을 헤쳐가며 과학기술의 나래 활짝 펴고 날을 때 사회주의승리가 있다는 사상을 깊이 절감하도록 하였다.

일터에 넘치는 혁명적랑만은 신년사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종업원들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조 정 호

장편소설 《첫 자욱》이 나왔다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는 장편소설 《첫 자욱》(민경숙 작)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양제1중학교 시절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첫 답사행군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정신을 지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주신 불멸의 화폭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것을 지키는데서 항일의 혁명전통을 고수하는 문제가 가장 선차적인 사업이라는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새겨안으시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을 지지해주시면서 초행길인것만큼 굳게 마음먹고 한번 걸어보라고 고무해주신다.

답사행군이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행군길이므로 명승지를 견학시키는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혁명전적지답사를 막아보려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5(1956)년 6월 5일 정양제1중학교 학생들로 무어진 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행군길에 오르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답사행군의 전 과정에 학생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정신과 높은 조직성, 규률성을 따라배우도록 이끌어주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우리의것을 제일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져있는 학생들에게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시를 하나 읊어도 다른 나라의것이 아니라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빛내일줄 알아야 한다는 애국의 정신을 심어주시고 몸소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으시며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나가신다.

교장이란자가 우리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교묘한 방법으로 외곡중상한데 대하여 즉석에서 단호히 론박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면서 교원들과 학생들은 격정과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 저마다 달려가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다.

소설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복잡한 가정환경문제로 고민하다 집을 뛰쳐나간 한 학생을 찾기 위하여 방방곡곡에 소식을 띄우시여 키여이 그를 답사행군대오에 세워주시고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신 사실 등을 통하여 절세위인의 뜨거운 인간애와 헌신의 세계를 감명깊게 전하고있다.

친솔위인의 혁명실록이 서술된 소설은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매한 위인적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대중운동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시한 문제

국토환경보호성 2중3대혁명붉은기 중앙양묘장 분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지지도단위의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신 현지교시를 관철하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양거점부터 잘 꾸려놓고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자면 우선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에 어려있는 사적내용을 환히 꿰뚫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교양거점부터 잘 꾸려야 한다고 본 분초급당위원회는 혁명사적교양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교양거점을 꾸리는 과정이 곧 종업원들속에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는 계기로 되게 한것이다.

교양거점들을 단위의 특성이 최대로 살아나게 꾸린것이 특징이다.

혁명사적교양실을 잘 꾸려놓은것이 그 한 실례로 된다.

분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건설에 조예가 있는 종업원들과 함께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326전선공장, 만경대닭공장을 비롯하여 앞선 단위들을 많이 닮도록 다니면서 좋은 경험을 배워왔다.

이에 기초하여 혁명사적교양실을 특색있게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성당위원회와 산림총국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학술내용구성안과 학술배렬도를 완성해도 령도업적이 집약적으로 반영되고 직관적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 사상하여 온넋을 바쳤다. 이 과정에 혁명사적교양실에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로 정과 현지지도과업내용이 집약적으로 현시되어 종업원들이 항시적으로 볼수 있게 되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실 때 수종이 좋은 나무라고 평가해주신 스트로브스소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을 형상해놓았다. 이것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순간도 잊지 않고 매일, 매 시각 되새겨보면서 그를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결심을 가다듬게 하였다.

매 교양거점마다에 반영한 교양내용도 주제가 명백하면서도 정중성과 지환성, 문화성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언혁소개실내부게건공사가 벌어졌을 때에도 그랬다.

전망사판을 만들어 전시하자는 안을 내놓은 한재순분초급당위원장은 다른데서 방조를 받아서 할수도 있었지만 종업원들이 제손으로 직접 만들게 하였다.

그 과정에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업적내용을 보다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양보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줄수 있게 전망사판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교양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졌다고 하여 종업원들이 당의 령도업적으로 무장되는것은 아니다.

분초급당위원회는 참관사업을 통해 종업원들속에 령도업적내용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나갔다.

우선 강사와의 사업에 힘을 넣었다. 정상적으로 만나 강의준비정형을 알아보고 새로 제시된 당정책도 알려주면서 강의를 주입식으로가 아니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다시말하여 여러가지 물음을 제기하고 대답하면서 다같이 강의내용을 미리에 새겨넣게 하였다. 문답의 방법을 위주로 하면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종업원들은 양묘장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속속들이 알게 되였다.

령도업적교양은 제기때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로부터 분초급당위원회는 구내를 령도업적교양마당으로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단위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였다.

청사의 홀에 설치해놓은 액정텔레비존을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업내용을 반복하여 내보내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종업원들이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사상정신적량식을 끊임없이 섭취하게 되였다.

양보장에는 교양거점들이 교양역안에 집중되어있다.

모자이크영상작품 《중앙양보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좋은 측면이 있었다.

교양사업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할수 있었고 그 실효 또한 높았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는 누구라없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업내용을 적은 수첩이 있다. 작업복웃주머니에 늘 넣어가지고 다닐수 있게 손바닥만 한 크기로 되여있다. 종업원들은 누구나 수첩을 가지고다니면서 길을 걸을 때도, 쉴참에도, 가정에서도 꾸준히 학습한다. 이렇게 하니 통시간이 필요없었다. 시간과 장소,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종업원들이 하루세끼 밥을 먹듯이 정상적으로 학습하게 되였다.

교양거점을 잘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종업원들을 당의 령도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첫 공정으로 틀어쥐고나간것, 이것이 분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의 하나이다.

세워야 한다

화, 집약화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이다. 이것을 관철하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였다.

분초급당위원회는 이것을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기술혁명결의목표에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종업원들을 새 기술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콤퓨터와 비품들을 갖추어주고 나무모생산과 관련한 문제들과 기술성과자료들을 직관화하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학습내용을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로 일관시키고 그 인식정형을 문답과 시험의 방법으로 총화하고 넘어가는 체계를 세웠다. 이것은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직심스럽게 배우게 했을뿐만아니라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분초급당위원회는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종업원들을 내세워주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렸다.

온실직장의 한 로동자가 강질유리온실에서 옹기에 의한 나무모를 생산하는데서 난문제로 제기되였던 이끼와 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받아들여 로력을 절약하고 나무모생장을 촉진시켰을 때에는 그를 혁신자소개판에 소개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것은 종업원들속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지펴주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누구나 새 기술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성과가 있었다. 온실직장의 한 로동자는 야외삼목장에서 9대의 양수전동기로 하던 작업을 1대의 양수전동기로 하기 위한 기술혁신에서 성공하여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자체의 기술력량을 믿고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게 한것도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지난해 온실에서 나무모들의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였다.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사람들속에서 론의가 많았다. 이때 분초급당위원회는 과학연구실의 연구사들을 차에 태우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이것은 연구사들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후에도 분초급당위원회는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의 발전추세를 보여주는 도서도 구해주고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약도 알맞게 보장해주게 하였다.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협의회가 여러차례 열렸다. 주최자의 한사람인 연구사 정경담동무가 관절로 인한 병으로 고생하고있을 때에는 필요한 약재도 구해주면서 정을 쏟아부었다. 이에 고무된 과학연구실장 박춘삼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온실에서의 창성이 딸나무모의 생물학적특성을 밝힌데 기초하여 영양관리에서 나서는 시비주기와 시비량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공함으로써 나무모를 한해에 40㎝이상 키워 당해에 산에 심을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곳 연구사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함으로써 해마다 26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전국의 양묘장들에 보내주었다. 또한 국가콤퓨터망을 통해 리용할수 있는 홈페지를 개설하고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2만2000여건의 자료를 구축했을뿐만아니라 원격화상체계를 도입하여 산림과학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얼마전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자면 종업원들을 당의 령도업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목표를 높이 세우며 이악하게 실천해야 한다.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사업을 대중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단위사업에서 비약을 일으키게 한 분초급당위원회 사업은 령도업적단위의 당조직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모범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새것의 창조에 애국이 있다

덕천철제가정용품공장 주물유색작업반의 로동계급

덕천철제가정용품공장은 크지 않은 지방공업공장이다.

여러가지 철제가정용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있는 이 공장의 주물유색작업반에서 최근 질좋고 쓸모있는 새 가정용품들을 개발생산하여 가정주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아직은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지만 남만 못지 않은 제품들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조국에 보탬을 주려는 이곳 작업반원들의 하나와 같은 마음이 안아온 성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새해 첫아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주물유색작업반 반장 최철민동무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과 흥분으로 높뛰였다.

올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심장에 새길수록 작업반에서 진행하고있는 새 제품개발사업을 더 줄기차게 밀고나갈 결심이 굳어졌다.

하다면 이들의 새 제품개발사업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지난해 봄 최철민동무가 작업반구내의 공지에 새 생산건물을 일떠세울 결심을 피놓았을 때였다. 지금 있는 건물에서도 생산을 잘하고있는데 왜 새로 일판을 벌려놓으려고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최철민동무는 두개의 제품을 꺼내보였다. 하나는 작업반에서 이때껏 생산해온 놈볶음관이였고 다른 하나는 같은 볶음관이지만 금속착색기술을 리용한 제품이였다.

《이 두 제품중 질이나 쓸모에 있어서 어느것이 더 좋습니까.》

그의 말에 좌중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같은 볶음관인데 왜 우리가 만든것이 남들것만 못해야 합니까. 조건이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매일수록 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세계를 압도하는 새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로동계급의 자존심을 걸고 말입니다.》

벌겋게 상기된 작업반장의 모습을 바라보는 반원들의 마음도 달아올랐다.

작업반에 새 제품개발열풍이 휘몰아쳤다.

먼저 작업반의 적은 인원으로 생산건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와 함께 서로 돕고 이끌며 금속착색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학습전투도 동시에 벌어졌다. 현행생산을 중단없이 보장하면서 그 모든것을 진행한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았다.

어느날 밤 건설장을 돌아보던 최철민동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송평숙동무가 겉싸게 삽질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가정주부인 그를 떠밀다싶이 집으로 들여보낸것이 얼마전이였다. 작업반장에게 송평숙동무가 말했다.

《새 제품이 쏟아져나오면 제일 기뻐할 사람이 바로 우리같은 가정주부들인데 그냥을 앉당겨야지요.》

최철민동무는 늘 작업반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진정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렇듯 새 제품개발을 위해온 작업반이 달그대로 불같이 살며 일했다.

하루일이 끝난 저녁이면 작업반원모두가 새 제품과 관련한 도면을 앞에 놓고 서로의 지혜를 합쳐갔다. 작업반장은 설비제작에 쓰일 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시안의 크고작은 공장, 기업소는 물론 도안의 여러곳을 메주밟듯 다녔고 중앙의 권위있는 과학자, 연구사들의 방조를 받으며 금속착색기술을 하나하나 리득해나갔다.

그러나 초행길이나 다름없는 새 제품개발사업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전투가 시작되여 여러달만에 생산건물이 일떠서고 제품개발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가 마련되였지만 시운전과는 매번 실패였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새 제품을 만들어낼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어느날 작업반원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장당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새것의 창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왕 걸음을 뗀 김인데 끝까지 가야지요. 동무들이 새 제품을 내놓는 날에는 내 모두를 업어줄테요.》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밑에 새 제품개발전투는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였다. 작업반의 기능공들은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설비의 불비한 개소를 하나하나 퇴치해나갔다.

한해도 다 저물어가던 지난해 12월 덕천철제가정용품공장 주물유색작업반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섰다. 긴장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설비의 고르로운 동음과 함께 제품이 생산되여나왔다. 검사결과는 합격이였다.

관내 자체의 힘으로 새 제품을 개발해냈다는 환희와 격정으로 온 작업반이 들끓었다. 작업반의 막내이가 《만들고보니 아무것도 아닌걸. 새해에는 이보다 더 좋은것을 만들 자신이 있어요.》 하는 바람에 생산현장에 웃음꽃이 활짝 피였다.

요즘 공장에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해본 주민들속에서 우리가 만든것이어서 더 훌륭하고 소중해보인다는 반영들이 계속 들어오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만을 모른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받들려면 할 일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인것이다.

작업반에서는 희유금속에 의한 착색방법을 받아들인 새 가정용품을 대량생산하고 그 질을 더 높이며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여 생산원가를 철저 줄일 목표를 내세웠다.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새로운 목표수행에 떨쳐나섰다.

덕천철제가정용품공장 주물유색작업반의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새 가정용품, 물론 그것은 요란한 발명품도, 첨단제품도 아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자그마한 가정용품 하나도 인민이 좋아하게, 우리식으로 만들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그 마음은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인가.

본사기자 리남호

양수기없이 농사짓는 고장

강령군 내동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양수기없이 농사짓는 고장이 어디인가?

이것은 언제인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생들의 알아맞추기경연에 제시되였던 문제이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 추억을 되살리는것은 얼마전에 바로 그 고장에 대한 취재를 했기때문이다.

강령군 내동협동농장에서는 양수기없이 농사를 짓고있다. 군에는 지수지가 있는데 다른 협동농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농장도 그 력을 톡톡히 보고있다.

뭐니뭐니해도 농사를 잘짓자면 물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것이 이곳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농장은 10여년간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입 잘하는 농장에 입욕심많은 일군이 있기마련이다. 알고보니 이 농장 관리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였다.

몇해전 농장에서 자연흐름식물길공사가 진행될 때였다.

농장의 일부 일군들은 기본물길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몇개 작업반에서만은 그냥 양수기로 물을 퍼올리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했다. 물길공사에 품이 많이 들기때문이였다. 그때 장영수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당정책을 조건을 보아가며 집행한다면 과연 우리가 당의 사상과 의도를 진심으로 받든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한W의 전기도 아껴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일군들부터 나라의 재산이 귀한줄 모르고 아껴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농장살림살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살림은?》

관리위원장의 말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렸다.

제1작업반은 농장의 기둥작업반이였다. 물보장이 어려운 조건에서 농사를 짓느라고 그들은 남들보다 몇배나 더 품을 들여야 했다.

관리위원장은 제1작업반의 물길공사를 통해 아직 자연흐름식물길공사에 신심이 없어하는 사람들을 정신차리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1작업반 물길공사에 온 농장이 떨쳐나섰다. 제1작업반원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무팔걷고 떨쳐나섰다. 여러날째 감당을 쳐내느라 농장원들이 어지간히 지쳐 주저앉았을 때 작업반장이 농장원들앞에 나섰다.

《종전처럼 양수기로 물을 퍼올리면 전기와 시간이 함비되는것은 물론 논농사에 물이 딱 필요할 때 어디 제 마음껏 쓸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사가 완공되면 나라의 전기를 절약할수 있어 좋고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지을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웃음속에 한 그 말은 그대로 위력한 선동이였다.

자연흐름식물길을 조성하는것도, 나라의 재부를 아끼고 절약하는것도 당정책이다. 그날 농장원들은 작업반장의 말에 힘을 얻으며 공사를 다그쳤다. 며칠후 자연흐름식물길공사는 성과적으로 끝났다. 포전마다 물이 철철 흘러드는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는 농장원들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날 누구나 생각했다. 만일 품이 좀 든다고 하여 조건이 좋은 곳에만 물길공사를 했더라면 우리 마음이 이처럼 가벼울수 있겠는가. 당정책을 받들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는 한점 티도 없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온 농장이 떨쳐일어나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고있기에 농장에서는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것이다.

양수기없이 농사짓는 고장, 나라를 위하는 이곳 농장원들의 애국의 마음을 엿볼수 있게 하는 말이였다. 그래서 더 정이 들고 떠나고싶지 않은 농장이였다.

본사기자

공장이 자랑하는 보배들

평양구두공장의 혁신자들

반년분의 도안창작을 보름동안에

지난 1월 15일저녁, 평양구두공장의 기술준비실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였다.

《오늘 완성한것까지 합치면 보름동안에 내놓은 신발도안이 수십종이나 됩니다.》

실에서 제일 나이어린 기술준비원의 기쁨넘친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실장 박경숙동무의 심장을 쿵쿵 울렸다.

수십종의 새 신발도안.

그것은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반년분에 해당한 설계량이다.

40년가까이 공장기술준비실에서 일해오는 박경숙동무는 이미 년로보장나이가 지났다. 하지만 날에날마다 힘과 열정이 샘처럼 쉬임없이 솟구치는것을 가슴뿌듯이 느끼고있는 그였다.

새 신발도안을 내놓을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신발도안을 다양하게 창작하여야 한다고, 인민들의 기호와 용도에 맞게 신발도안과 설계를 과학적으로 하며 끊임없이 갱신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생각하였다. 새 도안대로 신발을 만들면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 하고.

그래서 또 하나새것을 창조한 희열을 지그시 누르며 신발도안에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날 그는 또다시 새 도안창작에 달라붙었다.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기술준비원들에게 창조의 실마리를 펼쳐주기도 하며 창작에 여념이 없는 박경숙동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시대, 만리마시대는 머리에 흰 서리내린 그가 변함없이 애국의 한길을 줄기차게 이어가도록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제화작업반 반장 김정순동무는 제단이면 제단, 재봉이면 재봉 신발생산의 모든 공정에서 막힘이 없는 다기능공이며 능력있는 작업반장이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는 신발만들기처럼 재미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두배, 세배의 일을 해야 성차한다.

이런 그를 두고 직장일군들은 우리 직장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남다른 일욕심과 성실성때문만이 아니다.

우리 함께 만리마를 타자

올해 1월 2일 김정순동무는 성의껏 마련한 식료품들을 가지고 한 작업반원의 집으로 향하였다. 식솔많은 작업반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시기에 몇번이나 걸은 길을 그는 직장의 다른 동무들과 함께 또다시 걸고있는것이였다. 마치 친정집으로 가는 길인듯 즐겁게 걸음을 다우치는 그의 마음속에 울려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모든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동지들사이에, 이웃들사이에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뜻깊은 말씀이.

새해벽두부터 자기 집에 찾아온 작업반장앞에서 작업반원은 《반장이 자꾸 이러면 난…》 하고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때 김정순동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무가 나이가 우이니 자기가 먼저 찾아오는것이 도덕이라고.

하지만 작업반원은 그가 제 말하지 않은 속깊은 마음, 새해에도 함께 만리마를 타고 힘차게 내달리자는 작업반장의 진정어린 호소를 읽었다.

제화작업반원들모두가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된데는 작업반장 김정순동무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린다. —은산군청년체육관에서— 특파기자 찍음

룡설란에 어린 마음

서성구역 중신동 83인민반 김영애녀성의 생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으로 애국을 하려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중앙식물원 식물박물관에는 참관자들의 눈길을 끄는 한 식물이 있다. 높이가 1m, 너비가 1.5m 정도되는 10년생 룡설란이다. 원산지가 메히코인 열대식물이다. 이제는 풍토순화되여 가정들과 사무실들에서 많이 재배되고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룡설란을 중앙식물원에서는 아직 재배해본적이 없다고 한다.

하다면 이 식물은 누가 키운것이고 어떻게 되여 중앙식물원에 오게 되였는가.

서성구역 중신동 83인민반에 가면 동적으로 화분을 제일 많이 가꾸는 가정이 있다. 주민들은 그 가정을 가리켜 꽃집이라고도 하고 오성산집이라고도 부른다. 한것은 그 가정의 세대주가 30여년동안 최전연인 오성산에서 군사복무를 한 제대군관이기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가정의 주부인 김영애로인이다.

70나이를 가까이하는 로인의 모습에는 지성미가 짙게 흐르고있었다.

아니나다를가 그는 한생을 교단에서 보낸 어제날의 교육자였다.

그의 추억은 북방의 고향마을에서 흘러간 유년시절로부터 시작되였다. 해마다 민들레 곱게 피고 봄이면 사과꽃, 살구꽃이 만발하는 동네에서 그는 자랐다. 그래서인지 그는 남달리 꽃을 사랑했고 꽃가꾸기에 열성이였다. 언제인가 그렇게도 꽃이 좋은가고 묻는 어머니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김일성원수님을 뵈올 때마다 제일먼저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군 하지요. 난 세상에서 제일 고운 꽃을 가꾸어 꼭 원수님께 드릴테요.》

그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는 말했다.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여야 원수님을 뵈올수 있단다.》

어머니의 말은 어린 딸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대학에 가서도 최우등생의 영예를 빛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시절의 추억이 깃든 모교에 교원으로 배치되여왔을 때 그는 행세다졌다.

내 한생 이 교단을 지켜가리라.

그후 그는 남편을 따라 오성산에 보금자리를 폈다. 적들과 마주한 최전연지대의 학교에서 그는 교육자의 임무를 더 깊이 느꼈다. 그의 집뜨락에는 남새밭보다 꽃밭이 먼저 생겼다. 학교구내에도 꽃밭이 생겼다. 하루수업이 끝난 후면 그는 학생들과 함께 꽃밭을 가꾸었다. 그러면서 말해주었다. 봄이면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만경대며 백살구꽃 하얗게 피는 회령고향집, 겨울이면 서리꽃속에 묻히는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대하여, 가을이면 알알이 열매들이 무르익는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하여, 이 아름다운 나라를 혁명의 홍대로 억세게 지키고 더욱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려가야 한다고…

그렇게 그는 제자들을 키워보냈고 또 새 학생들을 맞아키우며 꽃을 가꾸었다.

언제인가 김영애녀성은 한 제자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선생님, 저는 오늘 대학생이 되였습니다. 최전연군관의 아들을 수도 평양의 대학에 불러준 당의 은정이 고마와 저는 오늘 기숙사주변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선생님이 초소로 떠나던 날 저의 배낭속에 꽃씨를 넣어주시던 일이 생각납니까. 그 꽃씨를 부대주변에 심고 가꾸어 받아낸 꽃씨를 말입니다. …》

제자가 오성산으로 보낸 그 편지를 김영애녀성은 평양에서 받아보았다. 소환된 남편과 함께 평양에 온 그에게 오성산의 학교교원들이 보내준것이였다.

오성산에서 받아낸 꽃씨를 배낭에 넣어 초소로 떠나보낸 제자가 한둘이라.

그는 딸들도 그렇게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냈다.

그는 평양에서 살면서도 오성산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오성산을 떠나올 때 1년생 룡설란을 화분에 떠가지고온 그는 인민반장사업을 하는 속에서도 때없이 학생들과 함께 키운 룡설란을 보며 제자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당의 참된 아들딸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던 지난해 어느날 꽃가꾸기에 필요한 경험을 배우기 위해 중앙식물원을 찾았던 그는 열대림온실이 일떠서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록음은 산지식을 주게 될 열대림온실에 그는 그토록 정을 다해 키워온 룡설란을 기증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싣고온 룡설란을 본 중앙식물원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애국은 불꽃튀는 건설장에만 있지 않다. 김영애로인이 발휘한 소행을 어찌 애국적이라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오성산의 교육자가 키워 기증한 사연깊은 룡설란.

우리는 김영애로인의 모습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그는 한생 새 세대들을 우리 조국을 떠메고나갈 나라의 기둥감들로 키운 교육자였다. 동시에 그들을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을 귀중히 여기고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헌신할줄 아는 애국자들로 키워 내세운 원예사였다.

교육자와 원예사, 참으로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말은 없을것이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나는 어머니조국을 위해 어떤 애국적소행을 발휘하였는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본사기자 오은별

자주와 병진, 일심단결로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세계대양을 틀어쥐며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특수한 존재처럼 행세하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지 50년이 되였다.

1968년 1월 23일 《민간해양연구선》으로 위장하고 우리 령해를 침범한 무장간첩선이 나포된것으로 시작된 《푸에블로》호사건은 그해 12월 23일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우리 공화국이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도 머리를 수그릴줄 모른다던 미국으로부터 당당히 사죄문을 받아내고 포로들을 우리 령내에서 추방하는것으로 통쾌하게 막을 내렸다.

미국력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였다. 《푸에블로》호는 미국남북전쟁이래 또 미해군창설이후 바다에서 처음으로 나포된 군함, 현재까지도 외국에 《억류》되여있는 미국의 유일한 함선이다. 당시 미국대통령 존슨은 우리에게 설겨바친 사죄문을 두고 《미국이 생겨 력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라고 개탄하였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그 어느 시기에도 미국은 이런 수치를 당해본적이 없다. 1962년의 까리브해위기때에 미국은 꾸바에 전개된 공격용무기들의 철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대국이라고 하는 쏘련의 군함들을 《국제헌병》이 되여 수색하는 놀음까지 벌리면서 민총이 죽대에 올라간것처럼 우쭐해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군정찰기가 대국으로 자처하는 나라의 전투기를 들이받아 바다속에 처넣고 뻔뻔스럽게 그 나라의 비행장에 불법착륙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사죄의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정찰기와 승조원들을 고스란히 찾아갔다.

하지만 《미국평토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푸에블로》호만은 반세기동안이나 조선의 전리품으로 남아있다. 지금 《푸에블로》호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끼고 유유히 흐르는 풍치수려한 보통강에 실물그대로 보존전시되여 찾아오는 내외의 참관자들에게 주체조선의 빛나는 승리와 미국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웅변적으로 가르쳐주는 《성실한 강사》노릇을 하고있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선전하고있는 반면에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체면과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구겨박아놓고있다.

미국은 50년동안이나 방어리 랭가슴앓듯 하며 괴로와하고있다. 《푸에블로》호와 저들이 남긴 사죄문이 미국의 패배를 더무나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기때문이다.

미국내에서는 초대국의 《자존심과 전통》을 걸고 《푸에블로》호를 찾아와야 한다는 소리들이 때없이 튀어나오고있다.

1968년에 찾지 못한 《푸에블로》호를 지금에 와서 만신창이 된 《자존심과 전통》을 내돌고 찾아보겠다는것은 어리석은 개꿈에 불과하다. 미국이 제 마음대로 찾아갈수 없는것이 《푸에블로》호이다.

전리품에 대한 처분권은 승자인 우리에게 있다.

《푸에블로》호사건은 우리 공화국의 1950년대의 전승을 더욱 무각시켜주고 조미대결전에서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 패배는 항상 미국의것이라는 법칙적인 두 전통이 더욱 줄기차게 흐르게 한 력사적인 계기점으로 되였다.

반세기가 흘렀지만 세계는 오늘도 《푸에블로》호사건을 돌이켜보며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크지 않은 조선이 유엔이라는 최대의 국제기구와 세상천지를 다 들어쥔것처럼 으시대며 마음내키는대로 장권과 전횡을 일삼는 비대한 미국을 세계면전에서 꿇어앉히고 또다시 항복서를 받아낸것이 너무도 불가사의하고 기적같은 현실이였기때문이다.

당시 우리 공화국은 비핵국가였고 미국은 세계최대핵보유국들중의 하나였다. 력량관계는 너무도 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푸에블로》호를 둘러싼 치렬한 대결전의 결과는 명백하게 조선 승리, 미국 패배였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을 타승한 비결은 자주와 병진, 일심단결에 있다.

자주는 주체조선의 신념의 기둥이고 자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투쟁방식이다.

자주가 있어 우리 공화국은 사면팔방에서 밀어오는 력사의 물결을 이겨내고 《푸에블로》호사건을 세계가 보란듯이 승리적으로 결속지을수 있었다.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였을 때 당황망조한 미국대통령 존슨과 전쟁사환군들은 《외교저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압력을 가하면서 사건을 유엔무대에 상정시키려 하였다. 쏘련을 내세워 우리가 미국배를 나포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강도적요구를 들고나왔다.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우리 공화국의 푸르른 하늘로 밀려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을 흔들어보려는 청탁의 손기척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웬만한 나라같으면 얼떨결에 뒤집음쳤을 그 사태앞에서 우리 나라는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주체조선의 강경한 립장은 미제가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는것이며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기때문에 미제가 항복서를 먼저 고 해도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 립장에는 자주로 전인미답의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자력으로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신 우리의 남다른 승리철학이 체현되여있었다.

그 어떤 압박도 회유도 우리의 자주권수호의지를 흔들수 없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미국의 횡포한 핵위협공갈을 분쇄한 사회주의조선의 막강한 힘이였다.

압박과 청탁으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 미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발광하였다. 월남전쟁에 동원되였던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포함한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로 출동시켰다. 남조선전역에 《비상동원령》을 내리면서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렸다. 원산항을 폭격하겠다, 조선배를 하나 붙들어다가 1대 1의 교환조건을 만들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하였다.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이 제시한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관철에 총매진하여 강력한 군사적힘을 다져놓았기때문이다.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의 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와는 비할바없이 강해졌다. 우리는 미제와 싸워이길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조건을 갖추어놓았다.

당시 미국회내에서 보복은 힘든 일이다, 원산항주변에 포병부대도 많고 미싸일기지도 있고 강력한 비행대가 있는데 어떻게 폭격하겠는가, 또 때를 빼앗아온다는것도 아주 비싼 값을 치르어야 하는 가망없는 일이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의견이 분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군사적힘이 얼마나 강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전만군민의 일심단결은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좌지우지한 강력한 정치사상적힘으로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일심으로 받들어 무적의 군력과 그것을 뒤받침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미결사전도 단결의 힘으로 밀려나갔다.

수령의 두리에 전군, 전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뭉친 불가항력적인 힘은 핵무기를 휘두르며 덤벼들던 미국을 무서운 공포에 떨게 하였다. 《보복》과 전면전쟁을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미제의 온갖 위협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것이 바로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던 미제를 뒤걸음치게 만들고 온 행성을 뒤흔든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위대한 폭탄선언은 자주로 굳건하고 병진으로 강해지며 일심단결로 전진하는 우리 전만군민의 신념의 메아리였다.

포로된 《푸에블로》호 선원들이 두손을 번쩍 들고 원산땅을 밟었다면 미국은 세계면전에서 위대한 주체조선에 항복의 사죄문을 섬겨바쳤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가릴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국가의 특허무기인 자주와 병진, 일심단결의 힘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다.

전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1968년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엄혹했던 해라고 침통하게 고백하였다. 미국의 한 언론은 《푸에블로》호사건이 자국에 있어서 수소탄피해를 입은것과 같은것이라고 아우성쳤다.

그때로부터 세기가 바뀌는 세월의 흐름속에서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조미사이의 힘의 구도도 완전히 변하였다.

주체조선은 세계적인 핵강국이다. 비핵국가 대 핵보유국으로 되여있었던 조미대결구도는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되였다.

1968년에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조치에 의해 미국이 《푸에블로》호를 나포당할수밖에 없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위협공갈하는데 마구 람용하던 핵무기사용권을 거두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빠졌다.

최근년간 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핵공갈의 력사에 종지부가 찍히는것을 막기 위하여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였을 때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이 악랄하고 횡포무도하게 날뛰였다. 온갖 추종세력들, 우리 주변국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까지 발동하여 우리 국가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핵위협공갈과 반인륜적인 제재압박을 미친듯이 가하여왔다. 우리 국가의 현이은 핵무력고도화조치들이 미국의 핵패권시대의 완전종말을 급속도로 촉진시키고있기때문이다.

우리의 지경가까이에서 열핵전쟁의 발동소리가 쉴새없이 울리고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흔들어보려는 별의별 궤변들이 어지럽게 터져나왔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 말살을 노린 제재망이 더욱 악착스럽게 조여들었다.

그속에서 우리 공화국은 한치의 랑선도 없이 곧바로 전진하여 인민이 오랜 기간 념원하던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를 쟁취하였다.

이 승리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국방병진로선의 계승이며 심화발전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조선혁명의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쥔 천만군민의 대단결의 힘으로 이룩한것이였다.

우리의 힘은 무한대이다.

《푸에블로》호사건을 불러쌴 조미대결이 조선반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벌어졌다면 오늘의 조미대결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미국본토라는 드넓은 범위에서 벌어지고있다.

주체조선의 핵주먹은 미국본토까지 목사발로 만들수 있는 무진막강한 힘을 가졌다.

만일 트럼프패당이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면 미국본토가 조미대결의 최후의 시합장으로 되는것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로씨아신문 《자브뜨라》에 실린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미국이 만약 〈푸에블로〉호의 교훈을 망각하고 조선반도에서 힘의 정책을 리행하는 경우 온 미국땅덩어리가 전시품으로 되는 비극이 빚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력사는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자주와 병진, 일심단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게 하고 주체조선의 지위와 세계의 전략적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최강의 무기이며 영원한 필승의 기치이다.

자주, 병진, 일심단결이 있는 한 최후승리는 반드시 주체조선의것으로 될것이다.

리 경 수, 리 효 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

얼마전 미국이 일본에 1억 3 000여만 US$분의 요격미싸일들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MK-29》미싸일발사대 4개와 《SM-3 블로크 2A》미싸일들이 머지않아 일본에 전개되며 그와 관련한 기술도 제공되게 된다.

지금 미국은 그것이 조선의 《탄도미싸일위협》으로부터 일본과 서태평양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일본《자위대》의 능력을 높여주는데 목적을 둔것이기때문에 아무런 위험성도 없으며 지역의 기본적인 군사적균형은 파괴되지 않을것이라는 망발을 줴쳐대고있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요격미싸일판매는 명백히 전지구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한 책동의 한 고리로서 지역정세를 대결국면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전지구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이것을 통하여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 적수들을 제압하여 세계패권을 쥐자는것이다. 이 전략실현에서 미국이 중시한 곳은 바로 저들에게 도전해나설수 있는 주요대국들이 밀집되여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다. 미국은 이곳을 중심에 놓고 미싸일포위망을 형성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왔다.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전지구미싸일방위체계에 끌어들이는것으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 하고있다. 이미전부터 일본과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지금은 신형요격미싸일의 공동개발을 다그치고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럴도전역의 10여개 기지에 《페트리오트-3》미싸일을 배비하였다. 혼슈에는 전파탐지소를 설치하였다. 미국은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 또다시 일본에 막대한 액수의 요격미싸일들을 넘겨주려 하고있다.

미국은 앞으로 일본의 미싸일방위체계를 남조선에 전개한 《싸드》와 결합시켜 지역에서 미일남조선을 망라한 3각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려 하고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더욱 적극화되고있는 미국의 전지구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은 말이 《방어용》이지 본질에 있어서 공격을 위한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미국이 일본에 들이미는 발사대와 미싸일들은 쉽게 공격용으로 전환할수 있는 이중용도를 가진것들이라고 평하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것들이 우리의 《탄도미싸일위협》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생때를 쓰고있다. 유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구축하고있는 전지구미싸일방위체계는 유럽과 중동은 물론 알라스카로부터 일본, 남조선, 필리핀, 오스트랄리아까지 포괄하고있다. 이처럼 넓은 지역에 구축되는 미싸일방위체계가 우리의 로케트들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지도상으로 보아도 잠재적적수들을 동쪽과 서쪽에서 압축하는 형태로 구축되고있다.

초보적인 군사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쉽게 분간할수 있다.

로씨아련방안전리사회 서기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계획이 본질상 로씨야와 중국을 전제한 목적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화를 다그치기 위한 미국의 구실로 리용되고있다는것은 이미 그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다. 워싱톤은 지역나라들에 자기의 전지구미싸일방위체계요소들을 배비하는 계획을 시종일관하게 실현하고있다.》고 한것, 전 로씨아전략로케트군 총참모장 빅또르 에씬이 《미국은 교활하게도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가 조선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거짓이다. 미국은 로씨야와 중국의 핵잠재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지구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고있다.》고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더욱 본격화되는 미국의 전지구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은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지역나라들이 부득불 자위를 위해 억제력강화에 힘을 넣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있다. 지역에서는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군사적대결과 충돌의 위험이 떠돌고있다.

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불아오고있는가 하는것은 명명백백하다. 그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리 학 남

정치난쟁이의 비루한 구걸외교

최근 아베패당이 해외의 어기저기를 쏘다니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을 마구 늘어놓았다.

유럽을 행각한 아베는 《조선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인할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 《유럽전체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반공화국광증에 열을 올리였다. 이에 뒤질세라 외상 고노도 아랍추장국련방과 카나다를 돌아치며 《조선이 핵, 미싸일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시간벌이를 하고있다.》, 《조선의 미소외교에 헛눈팔아서는 안된다.》고 횡설수설해댔다.

한편 일본은 우리와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는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나라들이 조선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대조선압력에 합세하게 하겠다고 떠들고있다.

대조선압박공조를 구걸해보려고 이 나라, 저 나라들을 돌아치며 잠꼬대같은 넋두리질을 해대는 섬나라 정치난쟁이들의 재적은 치사는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눈을 편히 뜨고 대세가 어떻게 흐르는지, 제 자신이 국제사회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똑똑히 분간 못하는 아베패당이 가련하다.

아베패거리들의 형태를 보면 역시 속통머리가 바르지 않은 섬나라족속들의 본색은 어디 감데가 없다.

아베패당의 추태는 반공화국압살이라는 범죄적책동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된 자들의 궁여지책이다.

미국산 행무새에 불과한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자위력강화조치가 위해질 때마다 준수없이 불딱 나서서 우리 국가에 의한 《세계적인 위협》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

시방나라들도 민망스레 놀아대는 일본을 가리켜 정치난쟁이, 철부지아이라고 조소하고있는 형편이다.

아베패당이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악담질을 해대며 비루한 구걸행각에 나선것은 제딴에 추구하는 음흉한 속심이 있어서이다.

노리는 목적은 우리 국가의 《위협》을 증폭시켜 저들의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해외침략을 추구하는 일본반동지배층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것은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실현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것뿐이다.

지난해의 사실들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아베는 헌법시행 70년과 관련한 어느 한 모임에서 《조선의 핵, 미싸일개발로 안보환경이 변화되였으므로 헌행헌법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여론을 오도해나섰다. 그에 적극 편승하여 고위정객들도 거끔내기로 《조선의 위협에 대처한 예비방안마련》이니, 《전쟁준비》니 하며 침략광기를 더한층 고조시켰다.

당시 외신들이 그것이 헌법개악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억지주장이고 《자위대》의 해외작전수행명분을 쌓기 위한것으로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조선반도에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음을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아베패거리들이 새해벽두부터 우리의 《위협》에 대해 그토록 요란스럽게 떠들어댄것은 《자위대》무력을 해외에 파견할수 있는 합법적구실을 마련하며 나아가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재침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이다.

일본반동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비상히 강화된 우리의 전략적지위를 대조선압박공조로 허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자체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아베패거리들이 좀스럽게 쏠려다닥거릴수록 일본특유의 정치적무지와 교활성, 경박과 허세만을 국제사회에 더욱 부각시켜줄뿐이다.

아베일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을 깔고뭉개 입부리를 잘못 놀리다가는 그로 인하여 초래될 참화를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제일먼저 들쓸수 있다.

아베패당은 대세를 똑바로 보고 대조선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라 명 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의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은 최근 미국이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북남사이에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여러차례의 회담들이 진행되고 이를 계기로 조선반도에 모처럼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는것과는 배치되게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미국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기간 우리의 있을수 있는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목밑에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주변수역으로 기동시킨데 이어 《스테니스》호핵항공모함타격단도 곧 출동시키려 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통신망교란과 반항공제압능력을 갖춘 《EC-130H》전자전기 1대를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배치하였으며 《B-2》폭전략폭격기 3대와 《B-52》전략폭격기 6대를 괌도에 전진배치하였다.

한편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기간 《반테로》의 명목으로 특수작전부대를 남조선에 파견하려 하고있으며 2월경에는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단행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내에서 지난해 12월 미군이 네바다주에서 최대규모로 진행한 특전대원들의 락하훈련에 이어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은 표면상으로는 극방성의 훈련 및 병력의 재배치계획에 따른것으로 보이지만 훈련이 진행된 시점이나 범위를 고려하면 북조선과의 전쟁에 대비한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도발책동은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아량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와 조선반도정세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미국은 지난 시기에도 우리가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조선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왔다.

최근 미국의 련이은 군사적움직임은 우리를 자극하여 강경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북남관계진전을 멈춰세우고 정세긴장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에 바탕을 둔것이다.

제반 사실은 누가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있으며 누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부채질하고있는가를 다시금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감도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있는 미국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에 응당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있으며 우리를 건드리는 그 어떤 군사적움직임에 대해서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루차 밝힌바 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를 귀중히 여기지만 결코 구걸하지는 않을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망동으로 조선반도정세가 또다시 긴장격화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드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단평 초대국의 낯뜨거운 아첨

유엔주재 미국대표부가 새해벽두에 연회를 차렸다. 무드스문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유엔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표결이 진행되였는데 그때 미국의 협력요청에 응해준 일부 나라 대사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미국의 전역을 돌아준 나라들에 대한 이를테면 《감사의 연회》였다.

유엔주재 미국대표 헤일리는 연회참가자들과 같이 찍은 사진과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벗들을 잊지 않을것이다. 감사를 드린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간 세상사람들의 모두매를 맞으며 외롭고 서러웠을 미국이고보면 엉성한 좌중에 끓어엎드려 절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이였을것이다.

결의안표결을 앞두고 미국은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나라들을 협박까지 하면서 불난 강변에 덴 소날뛰듯 하였다. 하지만 결의안은 대다수 나라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였다. 미국이 그렇게도 눈을 부라리고 발을 굴렀지만 국제사회는 비루먹은 개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망신거리에 당치않게 연회라는것을 차린것도 가관이지만 제 가랭이에 붙어살던 몇 안되는 손아래 나라들의 역성에 감지덕지해하는 풀은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세계에서 제노라 하던 미국이 제면마저 헤버리고 동정과 지지를 구걸하는 아첨외교에 나섰으니 실로 초대국으로 자처하던 그 《위엄》은 연기처럼 온데간데 없어졌다.

미국이 강권과 전횡에 매여달리는 한 그 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비참해질것이다.

리 철 혁

덫에 갇힌 쥐신세가 된 리명박, 반드시 감옥에 보내자

남조선 각계층 역도의 구속을 위한 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MB잡자 특공대》와 리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가 20일 서울에서 리명박역도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와 초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날의 투쟁에는 지난 주보다 두배나 많은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리명박을 구속하라》라고 쓴 구호판을 설치한 승용차를 선두에 세우고 역도의 집을 포위하는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사법부여! 국민을 믿고 정의의 칼을 들어 리명박을 수사하라!》, 《MB구속! 적폐청산!》, 《국민혈세 도적놈》이라고 쓴 프랑카드와 구호판들을 들고나가는 시위대오에서는 《리명박을 구속하라!》, 《리명박을 감방으로!》라는 구호가 연방 터져나와 거리를 진감하였다. 역도의 집가까이에서 경찰에 의해 더 전진할수 없게 된 군중들은 그자리에서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리명박을 구속하는것은 대다수 국민의 요구라고 하면서 리명박이 17일의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국정》농락, 국민기만, 《국기문란》범죄자, 사기군다운 립장발표였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리명박이 범죄를 감행하였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당국이 법대로 역도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명박은 쥐덫에 갇힌 쥐신세가 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역도가 앞으로 감옥에 가서 오래오래 살라고 조소하였다.

그들은 리명박과 그 일당이 역도의 구속을 모면해보기 위해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규탄하고 국민은 리명박, 박근혜세력들과 끝까지 싸워 적폐의 우두머리인 리명박을 반드시 감옥에 가둘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역도의 집주위를 행진하면서 《리명박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웨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수리아에서 감행한 미국과 서방의 범죄적만행 폭로

유엔주재 로씨야상임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서방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수리아에서 감행한 범죄적만행을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이 수리아의 라까시를 초토화한것으로 하여 도시의 인도주의상황은 파국상태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현재 온 도시에 지뢰가 매설되여있고 시체들이 차고넘치며 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물과 전기도 없고 의료기관도 없다, 도시는 복구되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수 없는 형편이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시민들은 피난민수용소들의 끔찍하고도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살고있다, 라까시를 장악하고있는 무장성원들은 집들에서 지뢰를 해제해달라고 부탁하는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듯이 행세하고있다고 단죄하면서 그는 미국과 서방은 라까시를 복구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자멸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부사령관이 18일 대외정책에서의 련속적인 실패가 미국이 자멸의 위기에 처해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거듭 실패하는것으로 하여 세계에서 이슬람교의 위력이 더욱 확대되였다고 하면서 이슬람교공포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랑진한 미국의 처사가 물거품으로 되였으며 미국은 이란에서 영향력을 잃었을뿐아니라 지중해동부로부터 홍해에 이르는 지역들에서 배격당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이 지난 40년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란인민을 굴복시키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러한 책동은 각성된 이란인민에 의해 좌절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에서 군사기지철거를 요구하여 집회

미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에서 13일 세계 각곳에 있는 군사기지들을 철거할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퇴역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기지는 필요없다.》라는 구호를 웨치며 일본의 오끼나와 등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즉시 폐쇄시킬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810134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